

청년, 도시와 만나다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2분야 (도시재생) I 군(郡)

지역	지자체	분야	구분	우수사례명	페이지
충북	증평군	2	군	수수광(水樹光) 이런 친수공간 또 없습니다. "보강천이 미루나무 숲을 만나다."	347
전북	완주군	2	군	대한민국 도시재생 시즌II, 사람중심의 아파트 르네상스 프로젝트 - 건물재생이 아닌 사람재생의 생태계 공동체 구축 선도 사례 -	355
전북	고창군	2	군	한국인의 본향 고창 친환경 에코시티 조성	364
전북	부안군	2	군	밤마실 야한구경 조성사업	372
전남	장성군	2	군	색(色)으로 소통(疏通)하는 옐로우시티 장성!	380
전남	완도군	2	군	작은 섬 폐교의 드라마틱한 변신 "느린섬 여행학교"	388
경북	칠곡군	2	군	근대 역사의 그늘, 재생의 빛을 드리우다. -연호2리 새들마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396
경남	남해군	2	군	힐링의 섬 보물섬 남해, 사계절 야생화 피는 보물창고	40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충청북도 증평군													
사 례 명	수수광(水樹光)! 이런 친수공간 또 없습니다. “보강천이 미루나무 숲을 만나다”													
분 야	1분야 - 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 - 도시재생 분야(●) 3분야 - 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 - 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 -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 Green-BEST증평실현 (공약실천계획상 공약번호 5-41) ○보강천 녹색 문화·체육공원화 추진 (공약실천계획상 공약번호 5-45) ○아름다운 읍 중심지 창조재생 사업 추진 (공약실천계획상 공약번호 6-53)													
사례요약	○ 충북 증평군은 전국 최소인 1읍·1면의 행정체제와 81.84km ² 의 전국 82개 군단위 중 울릉군 다음으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촌형 자치단체로 콤팩트시티(Compact City)의 전형임													
	○ 따라서 증평군은 도시형 자치단체의 도시재생과는 다른 농촌형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역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증가, 주민행복도, 주민건강도 향상,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지역 가꾸기 확산 도모													
	보강천(水) + 미루나무숲(樹) + 태양광 및 LED경관(光) 하천재생 추진													
	 (水) ○ 보강천 물빛 공원 조성 : 벽천분수, 바다분수, 물놀이장 등 ○ 지능형 교량 오작교 설치 : 길이 25m, 폭 1.5m ○ 주민 협력형 도랑 살리기 추진 : 13개 마을 참여, 9개 하천 복원 ○ 보강천 수질의 획기적 개선 <table><tr><td>하천명</td><td>수질항목</td><td>2010년</td><td>2017년</td><td>비 고</td></tr><tr><td rowspan="2">보강천</td><td>BOD</td><td>8.8mg/l</td><td>1.4mg/l</td><td rowspan="2">증평의 모든 도랑의 물들이 모이는 하천</td></tr><tr><td>SS</td><td>5.3mg/l</td><td>4.5mg/l</td></tr></table>	하천명	수질항목	2010년	2017년	비 고	보강천	BOD	8.8mg/l	1.4mg/l	증평의 모든 도랑의 물들이 모이는 하천	SS	5.3mg/l	4.5mg/l
	하천명	수질항목	2010년	2017년	비 고									
보강천	BOD	8.8mg/l	1.4mg/l	증평의 모든 도랑의 물들이 모이는 하천										
	SS	5.3mg/l	4.5mg/l											
 (樹) ○ 보강천 폐도 활용 자작나무 숲 조성 : 500m - 2016년 산림청 나눔숲 평가 : 232개 숲 중 최우수상 수상 ○ 지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미루나무 숲 동심꽃밭 조성 : 50m² ○ 1기관·1공원 가꾸기 일한 미루나무 숲 가꾸기 추진														
 (光) ○ 보강천 미루나무 숲 및 자작나무 숲 야간 경관화 - 증평대교~장미대교 간 437개의 태양광 활용 LED 설치 ○ 미루나무 숲, 물빛 공원 버스킹 공연 : 10회														
	○ 보강천 미루나무 숲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지역 활력 회복 및 지역 활성화 - 보강천과 주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의 증가 : 33,533명(2010)→37,595명(2017) - 충북도내 11개 자치단체 주민 행복지수 조사(참여자치시민연대) : 11개 시·군중 1위 - 지역 건강도 조사(질병관리본부) : 전국 3위 / 폐암 없는 도시 전국 1위													
	○ 보강천 미루나무 숲 중심 생태환경 도시 조성으로 다양한 분야 수상 - 생태환경분야 수상 : ‘16 전국 6대 녹색도시(산림청), ‘16 그린시티 국무총리상(환경부) - 문화 분야 수상 : 제6회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행정자치부) 국무총리상(문화지표 개선)													

수수광(水樹光) ! 이런 친수공간 또 없습니다. “보강천이 미루나무 숲을 만나다.”

□ 민선4기 증평군수 공약사업 확정 과정

- 증평군수 6대 분야 60개 공약사업은 3대 분야 52개 사업을 제시했던 선거공보를 기초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5대 핵심 공약 △출마의 변에서 밝힌 7대 분야 77개 공약(약속 777) △취임사(방송토론회, 연설 등에서 밝힌 공약) 등에서 제시했던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확정
- 공약 실천계획 확정 절차 및 과정은 ①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2014.7.23.) ②부서간 협의 조정 및 계획수립 ③공약이행 평가단 구성(2014.10.22.) ④평가단 심의(2014.10.24.) ⑤군의회 보고 및 심의(2014.11.25.)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제4대 홍성열 증평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증평군, 전문가·주민 등 25명 구성 - 60개 사업 조인

증평군은 지난 28일 증평군립도서관에서 총 북발전연구회, 충북테크노파크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선 4기 증평군 공약이행평가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홍성열 군수 공약사업의

증부매일

민선 4기 공약이행평가단 발족

대환 조연과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공약은 도약경제 337(기업 30개, 투자유치 3조원, 일자리 7천개) 추진을 비롯해 2일반산업단지 준공, 3산업(농공)단지 조성, 예뻐맘 특구의 본격 추진 등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을 뒀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7천3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공약이행평가단은 국도비 3천245억원, 군비 1천610억원, 민간유치 2천540억원 등 실행 가능한 사업비 배분과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4년 10월 27일 (월) 13면 지역

충청신문

민선4기 공약사업 주제 ‘희망·행복·미래’

증평군 주민행복 위한 6대 분야 60개 정책사업 추진

증평군홍성열 군수는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희망, 미래, 행복 3가지를 주제로 선정했다. 증평군은 민선4기 ▲활력 넘치는 경제기반 ▲희망 가득한 교육·문화 ▲환경을 누리는 보건·복지 ▲모두 잘사는 농업농촌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군민 우선의 섬김행정 등 6대 분야에 6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60개 주요 정책사업은 도약경제 337(기업 30개, 투자유치 3조원, 일자리 7000개)추진, 제2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제3산업단지 조성, 장항기금 70억원 확충, 다목적 종합 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관련부서의 계획수립과 검토과정을 거쳐 9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민선 3기 4년간 내실 있는

2014년 08월 06일 (수) 12면 지역

공약사업 추진으로 한국매니지먼트 실천본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전국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S.A등급을 수상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실천계획 수립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공약사업 이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정기적인 실적점검을 통해 이행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평/최은영기자 cye0303@daum.net

□ 친수 도시재생 공약 채택 배경과 개요

- 증평군의 지역적 특징은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울릉군 다음으로 작은 면적(81.84km²), 군 단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밀도(458명), 녹색생태도시, 후발 자치단체라는 특징을 가짐
- 특히 전국 최소인 1읍·1면의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의 94%가 증평읍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형태 조성을 지향하는 도시정책 모델인 콤팩트시티 (Compact City)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임
- 증평군은 면적 세계 192위(697km²), 세 번째로 높은 인구밀도(7,615명)를 가진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녹색공원의 도시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가진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와 같은 자치단체를 지향 → 증가포르 시책 추진

증가포르의 (증평+싱가포르) 꿈

JeungPyeong	Singapore
• 면 적 : 군 단위 81위 • 인구밀도 : 군 단위 3위 • 녹색생태도시 • 높은 자치경쟁력 • 청렴도 우수단체 • 과산군에서 독립 (자원이 전무한 도시)	• 면 적 : 세계 175위 • 인구밀도 : 세계 두번째 • 녹색공원의 도시 • 국가경쟁력 : 1~3위 • 세계 최고의 청렴도 •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 (물조차 수입)

- 이러한 증평군만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하고, 시(市)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는 차별화된 훼손과 개발이 아닌 농촌 중심지(읍)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필요성 대두
- 따라서 민선4기(다른 단체는 민선6기) 공약으로 아름다운 읍 중심지 창조 재생사업(공약번호 6-53) 및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 Green-BEST 증평실현(공약번호 5-41)과 연계한 **보강천 녹색 문화·체육공원화 추진(공약번호 5-45)을 공약으로 제시**

【공약실천계획서 사본】

5-45. 보강천 녹색 문화체육공원화 추진

중.월	문화체육관광(체육팀)
담당	전 부서

○ 여건 및 필요성

- 물 환경 및 배출과 제형 중심의 지역의 중심 광장 역할 수행
- 생활 체육 중심의 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 도모

○ 보강천 이용현황

<중식부제 추정 / 단위 : 명>

연도	계	문화체육	체육	기타	비고	
연도	계	인원	계	인원	계	인원
2010	28	10,900	5	2,800	17	3,400
2011	34	11,500	7	4,000	20	2,700
2012	20	8,300	5	3,000	11	2,300
2013	40	16,300	8	7,000	25	3,300

○ 사업개요

- 대 상 : 경미대교 ~ 증평대교 ~ 반안교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업비 : 2,100백만원
- 사업내용
 - 매도 활용 특색있는 숲 조성 및 산책로 조성 : A=10,000㎡
 - 수목식재 : 자작나무, 대나무 등 지역 특화 숲 조성
 -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매도 활용 산책로 설치
 - 나랏길 두공과 동산 조성 : A=7,000㎡ / 1,500본
 - 두공과 식재 : 백단심, 홍단심, 배달, 아사달 등
 - 산책로 및 부지경리, 편의시설 설치 등
 - 보강천 체육공원 스텝드 경비 및 태양광 보안등 설치
 - 풍자, 동물모형 LED, 교량 경관 조명 등 경관 개선
 - 기 설치한 그늘, 작은 도서관, 작은 체육시설 등 편의 시설 확충
 -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유치로 보강천 활용도 증대

- 108 -

6-53. 아름다운 읍 중심지(원도심) 창조 재생사업 추진

중.월	도시교통관리(시개발팀)
담당	미래전략과(미래전략팀)

○ 여건 및 필요성

- 도시 외곽으로 주거중심 이동 가속화로 원도심 시가지 노후화
- 원도심 및 읍중심지 공동화에 따른 중심지 활성화 필요

○ 도시재생 및 읍중심지 활성화 선도사업

【도시재생 선도 지역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특별법」 제33조 제1항 : 도시재생 시급, 파급효과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된 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도시경제기반형(복합개발) 및 근반재생형(서회 구도심, 중심시가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

- 읍면 중심지의 경제·문화·공동체活力的 중심지로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대 상 : 증평읍 일원 (55.4km²)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총사업비 : 5,6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재생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중앙 단위 유도
 - 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읍 종합경비) 추진 <1단계 예산>
 - 경교 실은 거리(결음의 거리) 가로경관 개선 (1개소) : L=400m
 - 도시 전선 지중화 사업(지차재, 한전 과 50%) : 2개 노선
 - 읍 중심지 디자인(Design) 사업 추진
 - 간판 시범거리 조성 : 1개 노선 (신규 67개소, 월거 141개소)
 - 2010년 ~ 2011년 : 2개 노선 (38개소, 26개 간판) 추진

- 126 -

5-41.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 Green-BEST 증평 실현

중.월	환경(환경정책팀)
담당	전 부서

○ 여건 및 필요성

- 1읍 1면의 행정체제, 82,84km²의 면적 격합형 도시 특성화
- 하천 수질 개선 관리를 통한 군민 생활 환경지수 상승 행복도시 조성

○ 보강천 유역 및 물환경 현황

○ 위 치 :	괴산군 ~ 증평군 ~ 청원군					
○ 유역면적 :	157,71km ² (증평군 76,52km ²) / 유량 16.6톤/초					
○ 유역인구 :	50천명 (증평군 35천명, 청원군 13천명, 괴산군 2천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BOD(mg/L)	3.4	2.4	3.2	4.7	4.9	3.2
SS(mg/L)	9.4	5.7	26.2	15.4	16.4	6.3

○ 사업개요

- 보강천 통합·결합형 오염저류 개선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비 : 21,786백만원(국15,236, 도 1,742, 군 4,788)
 - 폐수처리시설 : 2,700백만원, 하수관거 : 19,0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안농공단지 폐수중립처리시설(200톤/일), 증평5단계 하수관거 정비(19.1km)
- 연탄리 비위생 폐탕지 정비
 - 위치 및 규모 : 증평읍 연탄리 50 / 3,091㎡
 - 사업기간 : 2014년 ~ 2015년
 - 사업비 : 2,186백만원
- 타 공약 연계 사업 추진 :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도심지 소공원·함지공원 조성, 숲 조성, 시가지 내 휴식 공간 조성 등

- 120 -

□ 보강천과 미루나무(이태리포플러) 숲

- 보강천은 증평의 구 시가지와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를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금강(錦江) 최상류에 위치한 증평의 중심지, 증평의 젓줄이자 아름다운 물길임
- 그럼에도 보강천 둔치에는 폐도가 되어 방치된 제방도로와 무분별하게 식재된 수목들이 난립하여, 경관훼손은 물론 친수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불가
- 따라서 보강천변의 30여년전 식재된 120여그루의 미루나무(이태리포플러)들을 활용하여, 자연생태 중심의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심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천을 활용한 도시재생 공약채택



□ 수수광(水樹光)! 친수공간 공약 추진현황

-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보강천 주변 기존의 폭 2m내외의 제방도로가 폐도로 방치됨에 따라, 폐도로 방치되고 있는 증평읍 송산리 132-3 일원을 보강천 미루나무 숲과 연계를 통해 친수공간 중심으로 되살리기 사업 추진
- 보강천이라는 수(水) 자원, 미루나무 숲이라는 수(樹) 자원, 신성솔라(태양광) 및 후지라이테크(LED) 등 증평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특징인 광(光) 산업 자원을 활용한 수수광(水樹光)테마 도시재생 추진



1 물의 공원을 만든다.

- 2015년 9월~2016년 8월 기간중에는 충청북도가 공모한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응모한 7개 시·군중 1위를 차지하고 10억원(도비7, 군비3)을 확보하여 보강천 미루나무숲 '물빛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 높이 5m 규모의 풍차와 벽천분수, 바닥분수, 물놀이장, 정글모험 놀이대, 암벽오르기, 모래놀이터, 장미꽃, 갈대, 태양광 볼라드 조명 등을 설치



- 이와 함께 구 도심 주민들의 미루나무숲 활용 제고와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길이 25m, 폭 1.5m 규모의 오작교 설치
- 유수량 증가에 따라 자동 개폐 (우기시 제방으로 자동 수납, 평상시에는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 통행로 활용)되는 지능형 교량



② 숲의 공원을 만든다.

- 2014년 4월~2015년 4월 기간중에는 송산택지 개발 지구 조성으로 폐도가 된 기존의 보강천변 제방도로에

국비 8억원으로 산책로와 편의 시설 설치

- 이 곳에는 자작나무 333그루, 대나무 250그루 및 전나무, 상수리나무 등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하고 마사토 포장을 이용한 흙길 조성으로 미루나무 공원, 보강천변의 갈대밭과 연결 되는 증평 도심지 인근 최고의 산책로로 조성

-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의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전국의 323개 지역사회나눔 숲 및 복지시설 나눔 숲 평가

- 조성 내용 및 이용실태, 사후관리 부분, 주민 만족도등 평가 결과 보강천 녹색나눔숲 (자작나무숲) 전국 최우수상 수상



충북열보

2016년 11월 16일 (수)
12면 지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증평군을 나눔 숲 조성사업지 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증평 보강천 녹색나눔 숲.

산림복지진흥원 선정 나눔 숲 조성 사업지 증평 보강천 자작나무숲 '전국 최우수'

폐도된 제방도로에 산책공간

증평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선정한 나눔 숲 조성사업지 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나눔 숲 조성 우수기관 선정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전국 323개의 지역사회나눔 숲, 복지시설나눔 숲에 대한 조성내용 및 이용실태, 사후관리 부분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난 2014년에 조성한 증평 보강천 녹색나눔숲(자작나무숲)이

최우수로 선정됐다.

증평 보강천 녹색나눔숲은 2014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 8억 원을 확보했다.

폐도가 된 보강천 제방도로에 자작나무와 대나무, 은행나무 등을 식재하고 마사토 포장을 이용한 흙길을 조성, 군민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며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충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5억원을 들여 437개의 LED 등 태양광 경관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이색적이고 아

름다운 공간을 연출해, 지역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도 많이 찾고 있는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충성열 군수는 "2013년 산림공원사업소 신설 후 2014년 녹색나눔숲, 2015년 무궁화동산 조성 공모사업 선정 및 2016년 전국 6대 녹색도시 선정 등 괄목할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원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조형원기자
hsh023@naver.com

③ 빛의 공원을 만든다.

- 2015년 5월~2016년 5월 기간중에는 보강천 미루나무숲과

자작나무 숲 일원인 증평대교~장미대교 500m 구간에

5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437개의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신소재 LED램프 경관조명을 설치해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연출로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찾는 명소로 조성



충청매일

2015년 11월 10일 (수)
1면 지역



증평군, 보강천 녹색 숲 LED조명 설치 불거리 제공

증평군 보강천 증평 대교에서 장미 대교까지 500m 구간을 태양광 발광을 이용한 친환경 LED 조명이 녹색 숲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빛을 바누고 있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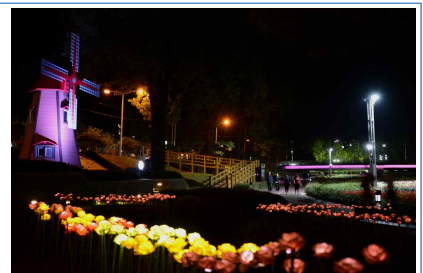
이번 조명의 설치에는 증평군에서 지원한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보강천 증평 대교에서 장미 대교까지 500m 구간에 태양광 녹색 LED 조명을 설치했다.

이 조명은 증평군에 LED조명이 설치된 야간에는 대교를 역삼각 형태로 꾸민다는 증평군 녹색숲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번 조명의 설치를 위해 증평군에서 지원한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보강천 증평 대교에서 장미 대교까지 500m 구간에 태양광 녹색 LED 조명을 설치했다.

이 조명은 증평군에 LED조명이 설치된 야간에는 대교를 역삼각 형태로 꾸민다는 증평군 녹색숲과



- 이러한 물과 숲 그리고 빛이 어우러진 재생친수 공간은 2015년 7월 11일~8월 22일 기간중 토요 상설 음악회, 2015년 9월 1일에는 자작나무 숲 조성과 야간경관 조명 점등을 기념하는 지역 예술인의 재능기부 공연 등 주민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재탄생



충청매일

2015년 11월 10일 (수)
1면 지역

빛과 소리의 향연 '장미대교 점등기념 음악회' 개최

증평군 보강천 천변공원 자작나무숲에서

증평군 보강천 천변공원 자작나무숲에서 열린 '빛과 소리의 향연' 공연 모습. 이날은 자작나무 숲 조성 기념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점등하고, 지역 예술인의 재능기부 공연이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증평군 문화재단에서 지원한 공연장비를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주민들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는 증평군 문화재단에서 지원한 공연장비를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주민들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는 증평군 문화재단에서 지원한 공연장비를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주민들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 수수광(水樹光) 친수공간 조성 공약 추진성과

① 주민이 함께 참여하다.

①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실개천) 살리기로 연결되다.

- 깨끗한 보강천 만들기를 위해 보강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류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마을 주민, 사회단체, 군부대,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 도랑의 여울 조성, 정화식물 식재, 정화 활동 전개 등을 통해 마을의 도랑을 친환경 도랑으로 재생하는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추진
- 환경부 공모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강천 물길 발원지인 도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질 정화와 하천생태계를 복원

【마을도랑 재생 사업 추진 현황】

연도별	개소수	마 을 별	도 랑 명	비고
계	15	13개 마을	9개 하천	
2012년	1	덕상3리	남차천	0.3km
2013년	1	송산1리	송산천	0.7km
2014년	3	남하1리, 노암2리, 덕상3리	한천, 백암천, 남차천	1.3km
2015년	3	남하2리, 석곡2리, 송산1리	수현천, 광덕천, 송산천	1.3km
2016년	2	남하1리, 광덕리	한천, 광덕천	1.0km
2017년	5	사곡1리, 남차2리, 울리, 석곡2리, 노암2리	궁전천, 둔덕천, 울리천, 광덕천, 백암천	3.5km

충청타임즈



충평군 민·관 도랑살리기 손 잡았다

8개 기관·사회단체 협약... 6300만원 투입 정화식물 등 식재

충평군이 관내 민·관과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14일 대회의실에서 박기진 자연보존국립의장, 연홍희 그린리더협의회장, 하경호 18공수여단

장모장 등 8개 기관, 사회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군은 이와 연계해 증평을 수현천(남차1리), 광덕천(석곡2리), 사후송산천(송산1리)에 사업비 6300만원을 들여 도랑 정화와 준설, 정화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군은 이보다 앞서 지난월 18일 5도보에서 환경부와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협약했다.

충평연 군수는 "도랑 살리기 사업은 옛 도랑의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 및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환경적 효과와 크다"며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180801@cctimes.kr

충청투데이

2017년 04월 27일 (목) 17면 지역

증평군 '도랑살리기 공모' 전국최초 6년 연속 선정

궁전·둔덕·울리·광덕·백암천에 여울조성·하천정화활동 등 진행

증평군이 전국최초로 환경부 주관의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증평을 사곡1리 궁전천, 남하2리 둔덕천, 울리 울리천, 노암면 석곡2리의 광덕천, 노암2리의 백암천 등 5곳이 선정돼 국비 1억 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도랑살리기는 자치단체와 주민, 사회단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울 조성, 수질 정화식물 식재, 하천 정화 활동, 환경 교육 등을 펼치는 사업이다. 군은 생활쓰레기와 퇴적물 등으로 오염된 도랑을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7월 환경단체와 군부대,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2.3km구간의 도랑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증평군은 5년 연속 도랑살리기사업에 선정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억 3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증평을 덕상3리, 송산1리, 남차1리, 노암면 노암2리, 석곡2리, 광덕3리의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충평연 군수는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 시켰다"며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건강한 녹색증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녹색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충평-김진석 기자

② 어린이와 함께 보강천 미루나무 숲 동심꽃밭도 조성하다.

- 2017년 6월 1일에는 홍성열 군수와 도안초등학교 학생 50명이 참석해 보강천 미루나무 숲속 50m²규모의 꽃밭에 채송화, 봉선화 등 10여종 1,500본 식재
- 꽃 식재 후에는 숲 해설가와 함께 미루나무 숲 주변에서 자연의 소중함과 하천 재생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함께 가짐



충청타임즈

2017년 06월 01일 (금) 1면 지역

증평군,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 숲속 동심꽃밭 조성

미루나무 숲에 채송화, 봉선화 등 10여종 1,500본 식재

증평군 홍성열 군수와 도안초등학교 학생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 숲속 동심꽃밭을 조성했다.

꽃밭 조성은 1일 지역의 대표적 풍습인 아이와 어른을 동심으로 이어주는 장수천 보림제(장수천)를 계기로 숲속 동심꽃밭을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성열군수를 비롯한 도안초등학교 학생 50여명이 참석했다.



③ 1기관 1공원 가꾸기 협약을 통한 주민참여형 미루나무 숲 가꾸기로 발전하다.

- 2016년 4월 1일에는 증평군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고엽제, 전우회, 삼보라이온스클럽, 제일교회 등 14개 기관 단체와 1기관 1공원 가꾸기 협약식 체결
- 참여기관은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등 환경 미화 활동과 소규모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물론 관리부서와 연락체계로 시설물 보수요청 및 불법행위 단속
- 보강천 미루나무 숲 및 자작나무 숲은 대한어머니회 증평군지부와 군부대가 참여하여 관리



증평타임즈
2016년 04월 29일 (금)
08면 지역

아름다운 증평 만들기 민·관 ‘맞손’

군, 새달 14개 기관단체 참여 ‘1기관 1공원 가꾸기’ 사업 추진

증평군이 공원 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기관 1공원 가꾸기 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유식공간인 도시 숲과 공원녹지를 민·관이 합동 관리해 관리예산 절감 및 봉사정신과 애용심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6일 바르게살기운동 증평군협의회, 고엽제전우회 증평군지회, 삼보라이온스클럽, 제일교회 등 14개 기관단체와 공원 가꾸기협약했다.

단체는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등 환경미화 활동과 소규모 시설을 유지, 보수한다. 군은 앞서 △공원 39곳 12만 2302㎡ △녹지 19곳 11만7888㎡ △은행나무 등 20종 1만3213본의 가꾸기를 조성했다. 홍성열 군수는 “단체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도시 숲과 공원 녹지가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이라며 “아름답고 쾌적한 증평군 건설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180801@cctimes.kr

② 하천이 문화를 만나다.

- 2017.6.16.~7.4. 기간중 보강천과 미루나무 숲 물빛공원에서는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찾아와 공연을 펼치는 물빛공원 버스킹을 통해 미루나무 숲을 지역의 대표적 문화소통의 장으로 활용

일시	내용
2017.6.16.	사운드박스, 스프링스
2017.6.23.	에이프릴세컨드, 충청대 그룹사운드
2017.6.30.	장선호(기타리스트)
2017.7. 4.	영트로트페스티벌(오로라, 영탁 등)

증평투데이
2017년 06월 01일 (목)
20면 문화·이웃

문화업서

증평 보강천서 16일~7월7일 매주 숲 작은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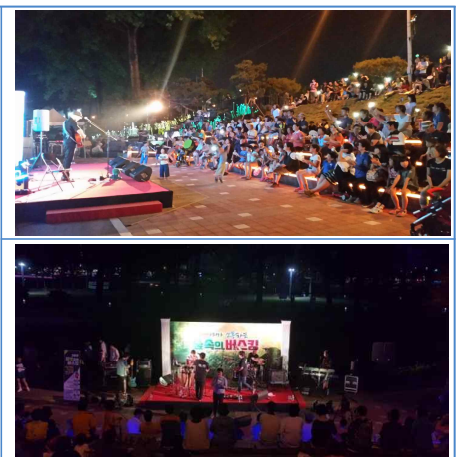
증평군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증평보강천 미루나무 숲 물빛공원에서 16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물빛공원 버스킹’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찾아와 공연을 펼친다. 군은 버스킹 공연을 통한 문화소통의 장으로 물빛공원을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평의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해 문화도시로서의 경쟁성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공연장소인 보강천 물빛공원은 지난해 높이 5m의 풍자와 벽면본

증평월보
2017년 06월 28일 (수)
12면 지역

물빛공원 버스킹 공연 호응

증평군, 주민 맞춤형 공연 열려

증평군이 젊은 군(80)에 걸맞은 맞춤형 공연 문화로 변화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보강천 물빛공원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 관람객들이 대부분 젊은층 주민을 위주로 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연은 지난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열린다. 지난해 22회 20여회 공연에는 500여 명의 관객이 찾아 공연을 즐기는 등 공연 시작 이후 약 1천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했다. 증평군에 처음 시도한 버스킹 공연은 바빠 소규모이지만 다양한 장르와 뮤지션들이 참여하고 있다. 평소 합하기 힘든 서를 통해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운드박스, 에이브릴 등



- 보강천 미루나무숲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 2014년 15백만원을 투자하여 3m x 4m x 2.6m 규모의 컨테이너형 작은 도서관(김득신 책방)을 설치하고 1,500여권의 도서를 비치
- 지역의 여성단체인 아이코리아 회원들이 4월~10월 기간중 운영하는 주민자율형 도서관으로 현재까지 2,500여권의 대출과 2,650명이 방문하는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변신



③ 지역의 건강도를 향상시키다.

- 보강천과 미루나무숲이 지역전체의 허파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가 자치단체 주민건강도를 조사한 결과, 증평군이 전국 3위로 조사되고, 폐암환자는 0.108%로 폐암없는 도시 전국 1위를 기록

증평타임즈
2014년 05월 28일 (수)
09면 14면

증평군의 '주민건강' 행진이 전국 3위에 오르며 전년도(5위)보다 2계단 상승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병환·의료 컨설팅회사인 엘리오엔컴퍼니(ELIO),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84곳의 군지역 자치단체의 주민건강을 조사한 결과 상위권에 기록됐다.

증평군 '주민건강' 랭킹 전국 3위
지자체보다 2계단 상승-폐암환자 0.108%로 1위 기록

④ 보강천의 수질도 개선되다.

- 보강천 친수공간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보강천 최하류 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수생태계 재생 확인 (2015년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우수사례 선정 / 4급수 → 2급수로 개선)

수질항목	2010년	2015년	2017년
BOD	8.0mg/l	1.4mg/l	1.4mg/l
SS	5.3mg/l	4.7mg/l	4.5mg/l

증평투데이
2015년 11월 20일 (토)
17면 18면

맑아진 증평 보강천...생태하천 복원 우수사례 선정
<4급수→2급수>

2003년 증평군 증평읍을 가로지르는 보강천은 하천 인근 옥사에서 발생한 하천으로 쫓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 하천 바닥에는 더러운 진흙이 잔뜩 쌓여 있었다. 당시 보강천의 생태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8mg/l로 크게 낮아졌다. 4급수에 해당하는 수질이다. 하지만 현재 보강천의 생태학적 산소요구량은 2급수 수준인 1.4mg/l로 크게 낮아졌다. 군이 보강천 주변의 폐지, 개축 5곳을 헐거하고 하천 바닥의 주범적인 하천 바닥 흙을 발굴해 정비한 덕분에다. 군은 하천 주변에 콘크리트 구조물(1만1000여㎡)을 친환경 자재로 바꾸고 산책로도 만들었다. 물이 잘 흐르도록 저수지 수문(5곳)을 설치하고 습지도 조성했다. 2013년에는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보강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줄이기 위해 빗물오염(비점 오염) 점검시설을 완공했다. 이 사업에는 120여원이 투입됐다.

보강천의 수질 개선과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주민들도 참여했다. 한국 농업경영인 증평군 연합회는 올해 주민들에게 물거머리 주기 위해 보강천 둔지에 보리를 심기로 했다. 증평군도 지난해 5월 착수한 보강천 녹색나눔 숲 일원 산책로(500여m) 야간 경관 조명 공사를 지난 6월 마무리했다. 군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보강천은 군의 대표적 휴식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번 내용의 증평군 보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받았다. 군은 보강천의 수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2018년까지 국비 등 100여억원을 들여 보강천 일대 사각·용강·원평리, 도안면 광덕리 일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증평·김인식 기자 ink2000@naver.com

□ 주요 수상사례와 지역발전

- 보강천 친수공간 조성 및 수질개선 등으로 증평군은 2016년 환경부의 그린시티 국무총리상 수상, 산림청의 전국 6대 녹색도시 선정과 보강천 나무 숲을 활용한 문화활동은 지역의 문화지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치단체생산성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
- 이와 함께 참여자치연대가 평가한 주민 행복 지수에 있어서도 정주여건 및 문화지표개선으로 충북도내에서 1위로 조사
- 인구 또한 2010년 33,533명이던 것이 2017년 6월말 현재 37,595명으로 증가 지역발전 견인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 지수
충북도내 1위
(11개 시군)
참여자치시민연대
(2016.10.21)

녹색도시
2016년 전국 6대
그린시티
(국무총리)
산림청
(2016.11)

생산성대상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행정자치부
(2016.10.28)

행복도시
충북도내 1위
충북도내 1위
(2016.10.21)

녹색생태도시
전국 6대 녹색도시 선정
보강천 명소화사업 등 호평

문화도시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2016.10.28)

【 주요 전경사진과 보도사항 】

도서관 앞 보강천

미루나무 숲 문화공연

미루나무 숲 야경

보강천 미루나무 숲 명소로 '달바꿈'
연주

증평군, 생태하천 복원-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관광자원화 추진

증평군, 생태하천 복원-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관광자원화 추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전라북도 완주군
사 례 명	대한민국 도시재생 시즌Ⅱ, 사람중심의 아파트 르네상스 프로젝트 - 건물재생이 아닌 사람재생의 생태계 공동체 구축 선도 사례 -
분 야	2분야 - 도시재생 분야(✓)
관련공약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추진
사례요약	(추진배경) ○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완주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지역으로 지역의 내발적 발전전략을 수립해 가면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하였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기존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건물과 경관을 바꾸어나가는 정책으로 흘러가는 문제를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으로 바꾸려는 최초의 정책사례로 현재 정부에서도 완주군의 “사람중심 도시재생”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농촌지역의 아파트는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어 도시가 아닌 농촌 도시의 사각지대로서 완주군 전체인구 41%가 아파트로 인간관계가 단절된 아파트 단지에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확산을 통해 “사람중심의 도시를 재생”하려는 시도이다. ☞ 핵심 키워드 : 구도심 재생을 “아파트 공동체 삶의 문화”로 재탄생하려는 모델 ☞ 사업의 핵심 : 우리 아파트 삶의 생태계를 우리 아파트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간다. (사례개요) 가. 아파트공동체 의식 환기 및 발굴하기 ◦ 르네상스 설문조사,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개최, 조례 개정(근거 마련) ◦ 주민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정산하는 주민 자율 공모사업 실시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 활동 공간 조성 나. 아파트공동체 참여 확산 및 활동 촉진 ◦ 공동체 활력과 및 도시공동체 팀 신설 (2016. 8. 8.) ◦ 권역별 아파트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 3회 ◦ 다양한 공동체 참여 가능 하도록 사업 유형 다양화 : 6개 유형 ◦ 아파트 현장 활동가 운영 (5명) : 권역별 배치, 현장 상담, 회계지원 등 다. 지속가능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 아파트공동체가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 라. 모두가 행복한 완주 공동체 만들기 ◦ 공동체 교류 협의회 구성(2개 권역) ◦ 공동체 교류확대로 얼굴아는 공동체 만들기 (주요성과) 가. 아파트 공동체 참여 증가 : 공동체 의식 확산 ◦ 12개(‘15년) → 35개(‘16년) → 79개(‘17년) 나. 공동체 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전국 최초 공동체 축제 개최 ◦ 총 97개 공동체 참여 (마을공동체 31, 아파트공동체 35, 지역창업공동체 31) ◦ 전국 최초 공동체 어울링 더울링 축제 개최 (2017. 9월 예정) ⇒ 향후 모든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공동체 간 무관심 갈등을 넘어 소통-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경제 신 모델 개척

대한민국 도시재생 시즌 II, 사람중심의 아파트 르네상스 프로젝트 - 건물재생이 아닌 사람재생의 생태계 공동체 구축 선도 사례 -

1. 건물 도시재생 이제 그만! 사람 도시재생으로 재 탄생한 완주이야기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51. 에코르3단지에서 또 전화가 온다...“르네상스사업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요?”“우리 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거요?”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해 시작한 **르네상스사업**인데...에코르3단지 공동체활성화 단체 대표 박창기의 고민이 깊어진다. 박창기 대표는 우선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전단지를 붙이고, 아파트단지 카페에 르네상스사업의 취지·목적 등을 담은 글을 썼다. 온라인 밴드를 결성하고 주요안건 등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벽면을 이용해 스티커투표로 의사결정을 했다. 공동체회원모집부터 회계정산까지 모든 걸 오픈하고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주부대상 프로그램으로 만난 입주주민들은 언니동생이 되고, 아동대상프로그램에서는 키즈운영위원회, 아빠서포터즈가 결성되었다. 공동체에서 발생하기 쉬운 **갈등과 반목의 해결**은 서로 간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구성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경강을 앞에 두고 담장하나로 맞닿아 있는 용진읍의 원주아파트와 덕천하이트 아파트. 원주아파트에는 2016년 르네상스사업의 공간조성사업으로 만든 ‘다인콤플터’가 있다. 이곳은 원주아파트뿐만 아니라 덕천하이트아파트 입주주민도 함께 이용한다. 두 아파트의 막힌 담 사이에 ‘소통의 다리’이라 불리는 계단을 설치해 왕래도 자유롭다. 이제 원주와 덕천하이트, 두 아파트는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하고 아이 돌봄교실도 같이 운영하며 두 지붕 한아파트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어두웠던 공간에 불이 켜지고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삼례주공2단지 공동체 한내락 회원들이다. 가죽공예, 퀼트, 생활소품DIY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내락공동체는 수업이 평일 저녁에 열리다 보니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수업에 나오는 경우도 많다. 회원 이현주씨는 “수업이 7시라 남편 밥을 한 시간 전에 미리 차려주고 나왔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퀼트를 배우고 있는데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 여기에도 나오게 됐다”며 “하나의 공통 취미로 모인 사람들이라 대화가 잘 통해서 즐겁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모든 한내마을 아파트 주민. 몇 년을 살아도 이웃 얼굴도 모르는 것이 아파트 생활인데, 르네상스사업을 통해 이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파트 현장 활동가?? 완주군민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현장활동가의 역할이 궁금해진다. 현장활동가로 일하는 황주희씨는 “현장모니터링 활동이 감시역할로 비춰져 회원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계속 만나다보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소한 일도 얘기하는 동반자가 되었다”고 한다. 현장활동가 지원사업은 전북최초 완주군에서 시행된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으로 6명의 현장활동가가 권역별(이서2권역, 상관, 용진, 삼례, 봉동)로 배치되어 효율적인 아파트공동체 운영관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건물만 바꾸면 도시재생인가요? 아닙니다. 건물보다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무엇이 문제인가요? 서로 얼굴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잦은 이주로 아파트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사람도시재생”의 전국최초 선도 모델이며, 현재, 25개단지에서 79개 공동체를 만들어 ‘사람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바꾸어야 합니다.

2. 정책도입 취지

완주군은 도농복합군(郡)으로 2008년부터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농가 생산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연결시키는 농가레스토랑, 로컬푸드 직매장 등 운영으로 명실 공히 「로컬푸드 1번지」로서 전국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7월 현재 완주군 아파트 주민은 45개 단지 39,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수의(96,030명) 41%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삼봉신도시, 미니복합타운, 행정타운 등 개발로 아파트 입주 주민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도시민을 위한 행정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변화 추이에 발맞춰 완주군은 민선6기 출범 후 군정목표를 ‘다함께 열어나가는 으뜸도시 완주’로 정하고 **3대 핵심 정책으로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간 마을에서 축적된 공동체 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 르네상스 설문조사,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준비과정을 거치고 2015년부터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아파트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은 “얼굴 아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시작이며, 대한민국의 아파트 생태계를 바꾸는 시도라는 점에서 정부, 지자체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의 트렌드에 맞는 시범사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 많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3. 아파트에서도 도시재생 공동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까?

1) 아파트공동체 의식 환기 (준비단계)

예전 마을을 떠올려 보면 탁 트임, 정겨움, 일손돕기, 이웃사촌, 공동체 등의 반갑고 긍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른다. 반면 아파트를 떠올려 보면 답답함, 개인주의, 삭막함, 고독, 무관심 등 부정적인 단어부터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마을이나 아파트 둘 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위와 같이 상반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들이, 느껴왔던 기억들이 달라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마을에서는 저절로 형성된 공동체가 존재하기에 공동체 사업 추진이 비교적 수월했지만 아파트에서 공동체 사업이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가. 아파트 인적 물적 자원 파악 위한 자원조사 실시

아파트 단지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개인과 단체의 인적 물적 자원의 현황 파악과 필요 분야를 도출하여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자원조사 실시

- 2014. 4 ~ 12월 : 완주군 37개 아파트단지 이장,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대상 실시

나. 아파트 주민과의 소통 시작 : 르네상스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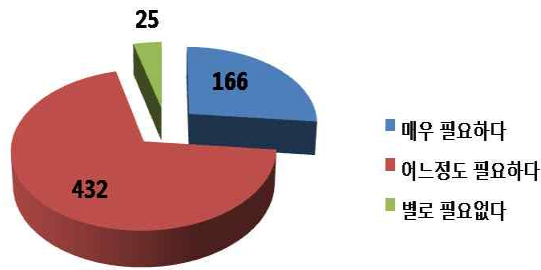
아파트 주민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욕구(Needs) 파악결과, 주민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를 위해 공동체 프로그램과 공유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결론 도출

- '14. 8. 22 ~ 9. 4 : 완주군 아파트 거주 주민 623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다. 아파트공동체 사업의 첫걸음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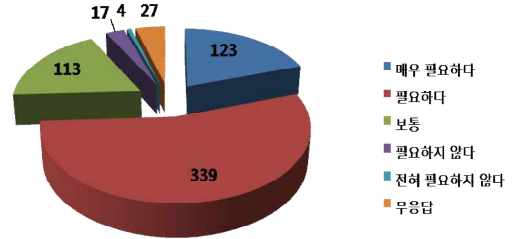
행정에서 직접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동체 사업의 취지를

○ 아파트 주민 간에 지금보다 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 : 96%, 필요없다 : 4%

○ 아파트 내에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 74.1%, 필요없다 : 3.3%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 7개 단지, 200여명

용진 대영('14.12.02)



상관 신세대지큐빌('14.12.18)



○ 방문기간 : '14. 10월 ~ 12월

○ 방문단지 : 이노힐스, 용진 대영, 코아루1차, 신진로얄, 에코르1차, 에코르2차, 신세대지큐빌

라. 아파트 조례 개정 (전북도 최초)

완주군의 살맛나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2월에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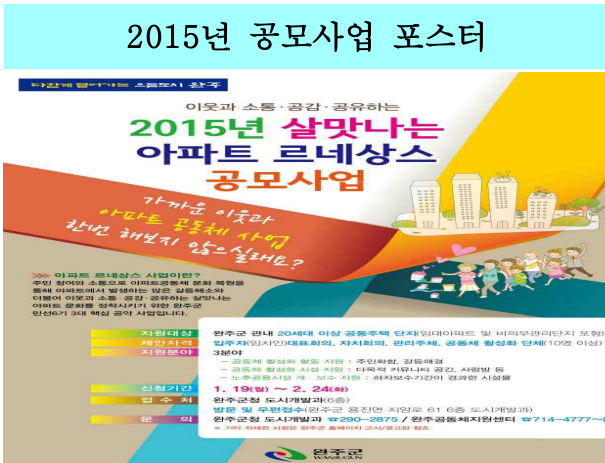
-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2) 아파트공동체 발굴하기

아파트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공동체 리더의 발굴 등 커뮤니티 자원을 찾는게 아닐까? 완주군에서는 숨어있는 공동체 리더를 찾고 커뮤니티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형태의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 사업”을 실시로 주민에게 성큼 다가왔다.

가.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사업 실시 : 공동체 활성화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 완주군에서는 아파트 주민 스스로 계획, 실행, 정산하는 자율 공모사업 형태로 아파트공동체 발굴에 총력을 기울임
- 첫 해인 2015년 1차에 단 5개, 2차에 7개 공동체만 참여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체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6년 총 3차에 걸쳐 35개 공동체가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재능 있는 주민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함으로써 주민강사를 배출



- 추진시기 : '15년부터 (현재까지 7회)
- 추진대상 : 완주군 아파트 단지
- 사업내용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한 공유 공간 확대

단지 내 유휴공간, 입주자대표회의실, 가스저장소 등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하여 공동체 활동 구심점 마련하고 단지 내 활용공간이 없는 곳은 인근 공공시설물(주민센터, 학교, 도서관 등)을 활용하였다.



- 추진실적 : 커뮤니티 공간 조성(16개소), 커뮤니티 공간 기능 보강(5개소)

3) 아파트공동체 참여 확산 및 활동 촉진

완주군은 아파트 공동체 참여 확산과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더 한층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 가. 공동체활력과 도시공동체팀(아파트 르네상스팀) 신설, 민·관 중간지원조직 협력
- 2016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공동체 전담과와 도시공동체 전담팀을 신설하였음 (2016. 8. 8일자 조직개편 - 공동체활력과 15명, 도시공동체팀 2명)
 - 민·관 중간지원조직인 완주군 공동체 지원센터 내 완주 르네상스 팀 지원 (2015. 3월 이후 - 완주 르네상스 팀 2명)

나. 우수 아파트, 공동체에 시상금 및 현장활동가 실비보상 지급 근거 마련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우수 아파트, 공동체 등 단체 등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활동가 양성 위한 실비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함 (2016. 12. 22일자 일부 조례 개정)

다. 아파트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아파트의 다양한 주민(입주자대표회,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관리사무소장, 입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 마련

삼례권역 간담회('16.9.28)



이서권역 간담회('16.11.08)



- 추진일정 : '16. 9월 ~ 11월(3개 권역)
- 의견수렴 : 의견반영 13건, 현장 답변 11건

라. 다양한 공동체 참여 가능하도록 사업유형 다양화

2017년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3년차를 맞아 공모사업 신청유형을 6개로 다양화 하여 사업 의지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

특히, 2017 하반기부터 수익창출형 예비형을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아파트공동체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

공동체 활동 사업유형(6개)

구분	유형	내용	신청자격 (최소인원)	지원한도액
활동지원	① 아파트형 (3프로그램 이상)	[1개 단지 아파트 전체 주민회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임] 주민수요 프로그램 진행 ※ 주민회합 행사 반드시 포함	아파트 주민협의체 (프로그램별 10명 이상)	500만원 (자부담 5%)
	② 동아리형 (1프로그램 이상)	[1개 단지 주민 간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자 하는 모임] 문화 교양 강좌, 단지정화, 과학교실, 음악교실, 스포츠교실 등	아파트 주민협의체 (10명 이상)	150만원 (자부담 5%)
	③ 연합동아리형 (1프로그램 이상)	[2개 단지 이상 주민 간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자 하는 모임] 문화 교양 강좌, 단지정화, 과학교실, 음악교실, 스포츠교실 등	아파트 주민협의체 (10명 이상)	150만원 (자부담 5%)
	④ 단지연합형	[2개 단지 이상 주민 간 마을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모임] 연합정리, 음악회, 아파트 연합축제 등 ※ 최소 월 1회 이상	아파트 주민협의체 (15명 이상)	200만원 (자부담 5%)
	⑤ 이웃사촌형	[가까운 이웃사촌끼리 모여 인사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모임] 라인모임, 복도모임, 동별 모임(반상회) ※ 최소 월 1회 이상	아파트 주민협의체 (5명 이상)	50만원 (자부담 5%)
	⑥ 수익창출 예비형	[자원 등을 활용, 소득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모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교육, 벤치마킹 등) ※ 최소 월 1회 이상 아파트·연세대학교·신촌·사당 참여공동체에 한함	아파트 주민협의체 (10명 이상)	200만원 (자부담 5%)

이웃사촌형(이서 에코르2단지)



- 추진시기 : 2017년
- 사업유형 : 아파트형, 동아리형, 연합동아리형, 단지연합형, 이웃사촌형, 수익창출 예비형

마. 아파트 현장활동가 운영 통한 일자리창출

공동체 활동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현장활동가 권역별 배치

현장활동가 모집 공고

「2017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자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완 주군에서 추진하는 「2017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명칭 : 2017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7. 3 ~ 6(상반기)
- * 실과소 읍·면별 사업 준비상황 등 여건에 따라 사업 시행일자 변경가능
- 모집기간 : 2017. 2. 6(월) ~ 2. 14(화) (8일간)
- 모집인원 : 2유형 4개 사업 17명

(단위 : 천원, 명)

유형	선정내역			비고
	부서명	사업명	참여인원	
		합계	17	
1유형	문화예술과	전통한지 제조·복원 및 공예품 제작 사업	5	
1유형	공동체협력과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현장활동가 지원사업	6	
1유형	농업농촌식품과	안전농자재 생산 보급 및 교육사업	3	
4유형	공동체협력과	연사이름림 마을공방 조성 사업	3	

아파트 현장활동가 현황

사진	성명 (연락처)	담당권역 (아파트)
	정경애	용진권역, 상관권역 (대명, 원주, 덕천하이트, 신세대지큐빌)
	강영숙	삼례권역 (대명, 주공2차)
	하경옥	봉동권역 (주공1차, 주공2차, 광신, 벽산, 코아루1차, 코아루2차)
	한이미	이서권역 (에코르1차, 이노힐스, LH9단지, LH10단지)
	황주희	이서권역 (에코르2차, 에코르3차, 부영)

- 활동가 모집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운영
- 활동가 역할 : 커뮤니티 자원 발굴(프로그램, 리더), 상담, 취재, 회계 지원 등

4) 지속 가능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지원이 끊기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공동체는 형성되는 것 못지않게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제는 공동체의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 공동체가 주도하는 한마당 행사(전시회, 발표회, 바자회, 장터, 알뜰시장 등)

공동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한마당 행사는 공동체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판매 수익금을 올려 자립성을 키우고 수익금 일부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등 따뜻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아파트형 르네상스 사업에 한마당 행사 개최 의무화

나. 수익 창출 아파트 공동체 단계별 육성

공동체 스스로 자립하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조금씩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수익창출 아파트 공동체 육성



- 1단계 :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참여
- 2단계 : 수익창출 예비형 지원
- 3단계 : 지역창업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발전 연계

전북도민일보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008면 지역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하반기 공모

공동체 넘어 수익모델 발굴

6개 유형 공동체 활동지원
자립 수익창출예비형 추가
협동조합 발전 준비 등 지원

아파트 공동체 문화이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공동체 문화 확산을 넘어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하반기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사업에는 총 6개 유형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특히 공동체 자립을 위한 수익창출예비형이 새롭게 추가됐다. 수익창출예비형은 지원을 활용해

소속을 열고, 자립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지원한다. 이 유형에서는 아파트공동체가 창업공동체로 가는 전문교육을 받거나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단, 최소 1회 이상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여야 한다.

완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립을 위한 수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돼 이밖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수익창출예비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진행했던 유형들에 대해서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체 활동 사업

유형으로 아파트형(1개 단지 아파트 전체 주민화합 모임), 동아리형(1개 단지 내 주민 프로그램 모임), 연합 동아리형(2단지 이상 주민프로그램 모임), 단지연합형(2단지 이상 주민간 행사모임), 이웃사랑행(다인, 동별모임)이 있다.

이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이달 13일까지 접수받으며, 완주군 아파트 소재 아파트 주민 협의체인 신청 가능하다. 사업설명회는 20일, 21일 양일간 오후 2시 완주군 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개발상당은 공동체지원센터(714-4777~8), 각 아파트에 게시된 아파트 현장활동가들 통해 가능하다.

완주=정재근 기자

5) 모두가 행복한 완주 공동체 만들기

완주군에 공동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에 대해 알고 싶은 공동체가 모두 모였다.

가. 공동체 교류 협의회 출범 (2개 권역)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해 온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지역창업공동체 간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 추진 위한 구심점 마련

- 협의회 구성(17년 3월) : 2개 권역

교류협의회 워크숍('17.5.19)



교류협의회 발대식('17.5.31)



- 결성시기 : 2017. 3월
- 추진내용 : 간담회, 워크숍, 발대식, 공동체 어울림 더울림 축제 (9월 예정)
- 총 97개 공동체 참여 (마을공동체 31, 아파트공동체 35, 지역창업공동체 31)

구분	해당읍·면	회장	부회장	총무
1권역	삼례, 이서, 구이, 상관, 소양, 동상	유영배	유철환(마을), 이주갑(창업), 박창기(아파트)	차정화
2권역	봉동, 용진, 비봉, 고산, 화산, 경천, 운주	이일구	노재석(마을), 김송화(창업), 김진호(아파트)	하경옥

- 협의회 역할
 - 매년 공동체 축제 개최
 - 장기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발전방향 논의
 - 공동체사업의 다양한 정보공유 및 행사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간담회(10회), 워크숍(2회), 발대식(5.31), 공동체 축제(9월 예정)

나. 공동체 교류 확대로 「모두가 행복한 완주 공동체」 만들어가기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지역창업공동체 간 교류를 시작으로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여성공동체, 청년공동체, 교육공동체, 귀농귀촌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 교류 사업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공동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 신모델 개척

-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직거래 장터 열기
- 여성공동체가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 협력 가능한 공동체끼리 공동체 협동조합 설립 등

돌봄교실



사회적 신모델 개척

✓ 행복공동체 3단계 추진계획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전라북도 고창군
사 례 명	한국인의 본향 고창 친환경 에코시티 조성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해당되는 경우 관련 공약명 기재)
사례요약	I. 추진배경 1.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2. 군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을 잘 보전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미래 먹거리 부가가치 창출 II. 추진방향 1. 전 군민 참여로 대대적으로 그린(Green) & 클린(Clean) 고창 운동 전개 2. 미래 먹거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전·유지하는 전략적인 정책 수립 3. 자연생태 환경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마련 III. 추진내용 1. 아름다운 마을 가구기 사업 추진 2.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고인돌, 운곡습지) 3.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학생교육사업 추진 4.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사진공모전 및 동식물 도감 제작 4.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 4.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IV. 추진성과 1.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 고창부안갯벌람사스습지 지정(2010년), 운곡람사르습지 지정(2011년),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13년), 생태관광 성공모델 및 생태관광우수지역 지정 2. 전 군민 참여로 대대적으로 그린(Green) & 클린(Clean) 고창 운동 전개 -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방치폐기물 등 오염원인물질 제거 등

한국인의 본향 고창 친환경 에코시티 조성

① 추진배경

-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
-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 건설을 위해 군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을 잘 보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다가올 미래에 큰 부가가치 창출

② 추진방향

- 전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그린(Green) & 클린(Clean) 고창(Gochang)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내 집, 내 직장, 내 지역부터 깨끗하게 군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의 군민의식 고취
- 미래 먹거리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전·유지하는 전략적인 정책 수립
- 자연생태 환경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온실가스 줄이기 등 범 군민 운동 전개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3 추진내용

■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더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제초작업·방치쓰레기 수거 등 마을 주변 정비, 마을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마을 경관 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하여 마을별 숙원사업을 추진
(총 47개 마을 참여, 2014년 14개마을, 2015년 33개마을, 2016년도 44개마을)
- 사업 추진 사진



■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고인돌-운곡습지)

- 운곡람사르습지, 고인돌세계문화유산은 세계적으로 생태·문화적 보전 가치가 크고, 우수한 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등 보전 자원의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태관광을 적극 추진하는 등 운곡습지를 전국 대표 생태관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지정 육성사업을 추진
- 한편, 고인돌-운곡습지는 국가 생태관광지역(환경부, 2015년), 1시군 1생태관광지(전라북도, 2015년) 지정되었음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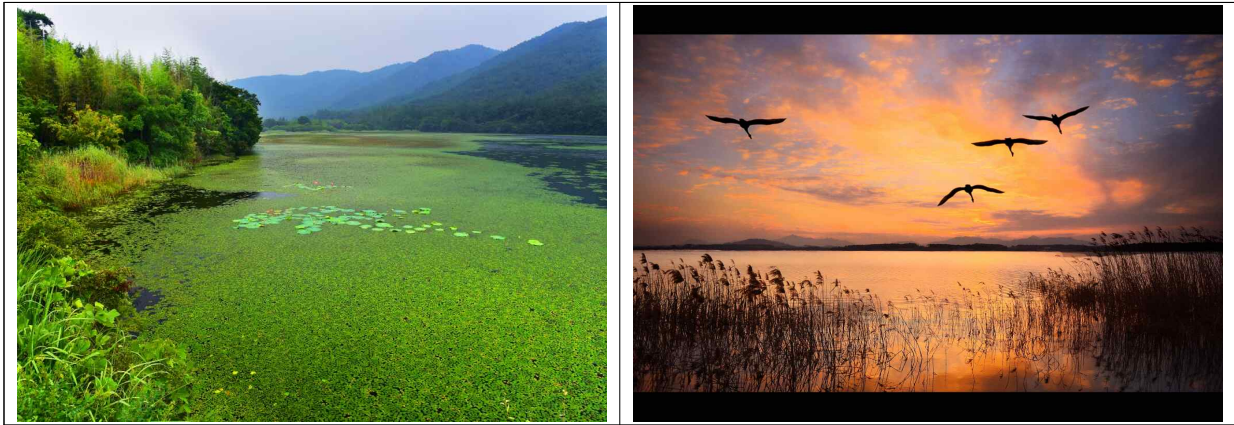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학생교육사업 추진

- 미래 주역인 관내 학생들에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학생 교육사업을 추진함 (2014년 41개교, 2015년 13개교)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자연환경사진공모전 개최

- 우리군의 우수한 생물다양성, 생태경관 등을 발굴하여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자연환경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수상작은 포토북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전국 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 배포하여 생태자원의 우수성 홍보, 교육자료로 활용
- 공모전 입상작 사진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동·식물 도감 제작

- 고창생물권보전지역(5개 핵심지역)에 서식 및 식생하는 동·식물을 도감 형식으로 제작하여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학생,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함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

-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점관리센터를 마련하여 보전·발전·지원기능의 세부 전략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내·외 생물권보전네트워크의 참여와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으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홍보효과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 위치 사진



■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

- 수질오염으로 훼손된 도랑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랑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내의 도랑을 자연석 쌓기 등 친환경적 도랑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생태학습 공간 조성 등 학생들에게 물의 중요성 인식 및 친환경 학습공간을 조성

○ 사업완료 사진



■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 농촌지역의 고령화 사회는 폭염, 가뭄, 한파, 폭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하여 재산·인명 피해가 커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기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모정 시설 개선, 야외 기후적응쉼터 조성, 홍수예방 배수로 정비, 전염병예방 흙먼지떨이기 설치,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을 추진해 이상 기후에도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기후변화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 조성완료 사진



■ 그린리더 양성교육 시행

- 기후변화원인, 녹색생활 실천방법,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리더 역할 등의 교육을 통해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생활화 전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그린리더(초급자) 양성교육을 실시
- 그린리더는 그린스타트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가정에너지 온실가스 진단 등 환경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
(총 515명 양성(2012년 91명, 2013년 28명, 2014년 64명, 2015년 74명, 2016년 258명))

○ 교육 사진



4 추진성과

- 우리군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함
고창·부안갯벌람사르습지 지정(2010년), 운곡람사르습지 지정(2011년),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13년), 생태관광 성공모델 및 생태관광우수지역 선정(2014년)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지역으로 지정
-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을 시행
- 기후변화분야로는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그린리더 양성 교육(515명),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학교 운영(741명), 탄소 포인트제 가입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이산화탄소(4,083톤) 감축, 온실가스 줄이기 범 군민 운동 전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도 함께 동참
- 자원순환분야로는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사업,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영농폐기물 수거, 환경기초시설의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고창군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부가차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잘 보전·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 건설을 위해 군민과 함께 힘차게 노력
- 고창군에서는 먼저 내 집, 내 직장, 내 지역부터 깨끗하게 군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의 군민의식 고취는 물론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군정비전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 설정하여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고창군은 전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그린(Green) & 클린(Clean) 고창(Gochang)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우리군의 지속적인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고창군 전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방치 폐기물 등 오염원인물질 제거, 친자연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군 전역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전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전라북도 부안군
사 례 명	밤마실 夜한구경 조성사업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2-2)부안읍 구도심 개발 (4-20)시내키퍼 및 의자설치
사례요약	부안을 정원문화도시로 가꾸어 가는 밤마실 夜한구경 1. (야한5경 정원이夜) 너에게路 I 구간 및 II 구간 : 폐구거를 힐링정원으로 ○ 위 치 : 부안읍 봉덕리 86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I 구간(2015. 5), II 구간(2015. 7~ 2016. 4) ○ 사 업 량 : I 구간(700㎡), II 구간(800㎡) ○ 사 업 비 : I 구간(120백만원), II 구간(300백만원) ○ 사업내용 :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구거를 도심 속 힐링정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겐 아침·저녁 산책로, 읍내 관광객들에겐 관광상품, 주말엔 버스킹과 플리마켓 장소로 활용됨 2. (야한2경 청춘이夜) 별빛으路 : 구도심 술집골목을 별빛공원으로 ○ 위 치 : 부안읍 동중리 222-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 5. ~ 10. ○ 사 업 량 : 120m ○ 사 업 비 : 850백만원 ○ 사업내용 : 80년대에는 구도심 변화가였으나 직행버스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쇠락해졌고 폐점된 술집과 여인숙이 흉물로 남아있던 곳을 은하수 물길이 흐르는 별빛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겐 자부심과 의욕을 주었고, 상권 활성화의 동기가 됨 3.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재생형 랜드마크 조성 ○ 다섯 개의 회전교차로 내 부지에 오복게이트 조성 : 40백만원 ○ 관광형 버스승강장 설치 : 240백만원 ○ 환경사각지대에 디자인의자(40백만원) 및 쉼터의자 설치(40백만원)

밤마실 夜한구경 조성사업

① 천만 관광객이 다녀가도 지역경제는 쇠퇴한다.

1. 해안선따라 관광산업은 발달하는데 읍내경제는 제자리 걸음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변산반도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동선은 대체로 부안IC, 줄포IC를 통해 들어와 국도 30호선인 해안선을 따라 변산면(변산해수욕장, 격포항, 채석강)과 진서면(내소사, 곰소염전, 젓갈마을), 줄포면(줄포만갯벌생태공원)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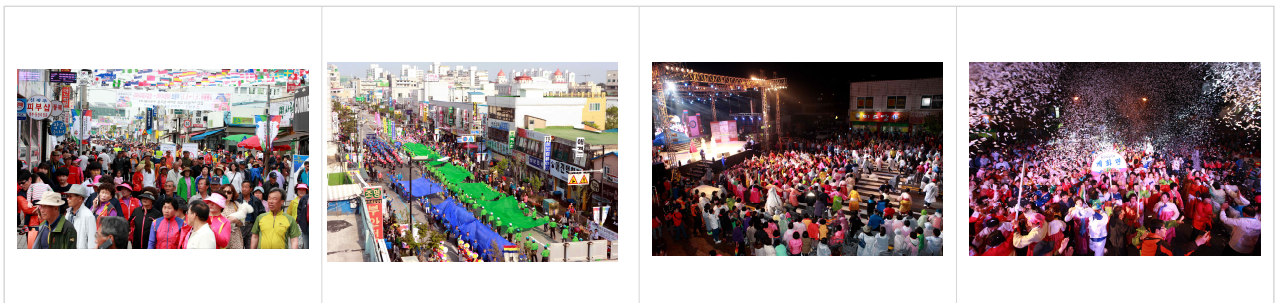
- 대명리조트 변산 입주 후 가족형 콘도와 수 백 개의 펜션들이 들어서면서 휴가철이나 연휴가 되면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부안읍내로 유입되지는 않았다. 2016년 유·무료 관광객 수가 1천만을 넘어서고 국도 30호선을 따라 이동하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부안읍내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었다

2. 부안읍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안마실축제를 거리축제로 전환

- 관광동선이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관광객들이 읍내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읍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꼈다
- 출생율 저하, 일자리 부족, 교육문제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안읍내 지역경제가 쇠퇴해 갔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부재하였다
- 부안마실축제 장소가 읍내 외곽에 위치해 축제가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부안마실축제 장소를 읍내 중심거리로 변경하여 거리축제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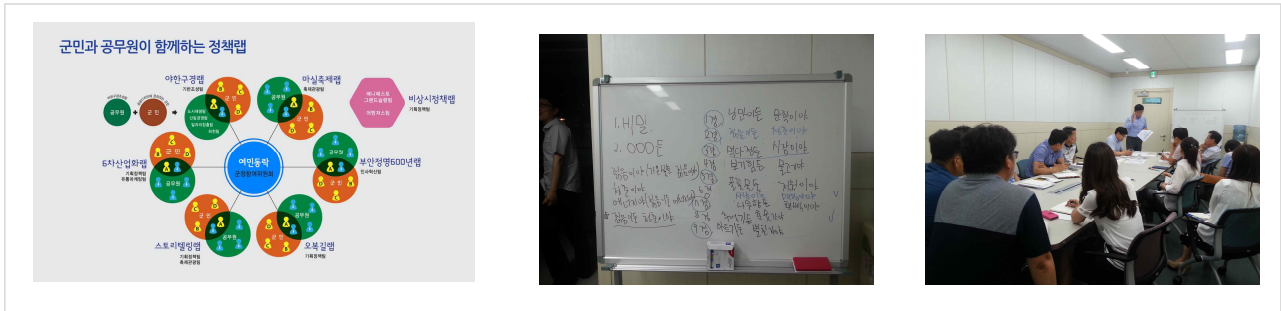
3. 2015 부안마실축제의 성공

- 부안마실축제는 전국 최초 소도읍 거리축제로 거듭나면서 전국에서 30만명이 찾는 거리형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축제 참가자들은 서너 시간 읍내에 머물며 축제를 즐길 뿐 여전히 변산면에서 숙박하고 진서면에서 젓갈을 사는 패턴을 유지했다. 과연 읍내에서 1박을 하고 3일간의 축제를 1박 2일로 즐기면서 읍내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있을까? 축제가 끝나고 오답노트가 작성되었다.



4. 부안읍내 1박 2일 관광상품 필요성 대두

- 변산면과 진서면에서 부안읍내까지는 30분 이내로 관광객들에게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거리이다. 이에 부안군은 관광객들을 읍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부안읍내 1박 2일 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시작하였다.
- 축제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참여하면서 공공디자인과 도시재생,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군민들이 자생적으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이 모임에 공무원들이 합류하면서 정책랩이 생겨났다. 정책랩은, 군정의 정책을 군민과 공무원이 기획하고 설계한다는 취지로 모인 정책실험모임 또는 정책연구모임이다.



2. 밤마실 夜한구경의 탄생

1. 화투판도 족보가 있고, 풍경에도 9경이 있다

- 정책랩에서 주목한 것은 이미 조성한 곳과 현재 조성 중인 사업이었다. 석정문학관, 부안상설시장, 물의거리, 매창공원 등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젊음의 거리, 에너지테마거리, 매창사랑의테마공원, 신운천생태숲조성, 고마제 등은 국도비 사업으로 조성 중에 있었고, 진동·서림·석동공원은 혼한 산책로여서 새로운 리모델링이 필요했다.
- 9곳을 선정해 밤마실 夜한구경을 만들었고 주민들과 함께 콘셉트 회의, 기본계획회의, 실시설계회의를 함께 해 나갔다. 새롭게 편성한 예산은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것뿐이었고, 그 하드웨어에 스토리텔링과 운영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주민참여형 회의를 통해 만들어갔다. 관심은 참여가 되었고, 참여는 희망을 낳았다.

2. 夜한구경 명칭과 조성구간

구분	스토리명	장소	담당팀	비고
夜한1경	상상이든 문학이夜	석정문학관~부안동초등학교	관광축제	완료
夜한2경	낭만이든 청춘이夜	에너지테마거리	농촌개발	완료
夜한3경	먹다정든 시장이夜	부안상설시장	일자리창출	완료
夜한4경	보기힘든 물고기夜	물의거리, 룡룡피쉬	도시재생	완료
夜한5경	꽃꽃물든 정원이夜	너에게路(1,2구간)	기반조성	완료
夜한6경	사랑이든 매창이夜	매창사랑의테마공원	공원녹지	'17년
夜한7경	나무향든 편백이夜	서림·연곡·진동공원	공원녹지	'17년
夜한8경	하늘물든 호숫가夜	고마제	기반조성	진행
夜한9경	편지가든 별천지夜	신운천 생태숲 조성사업	수생정원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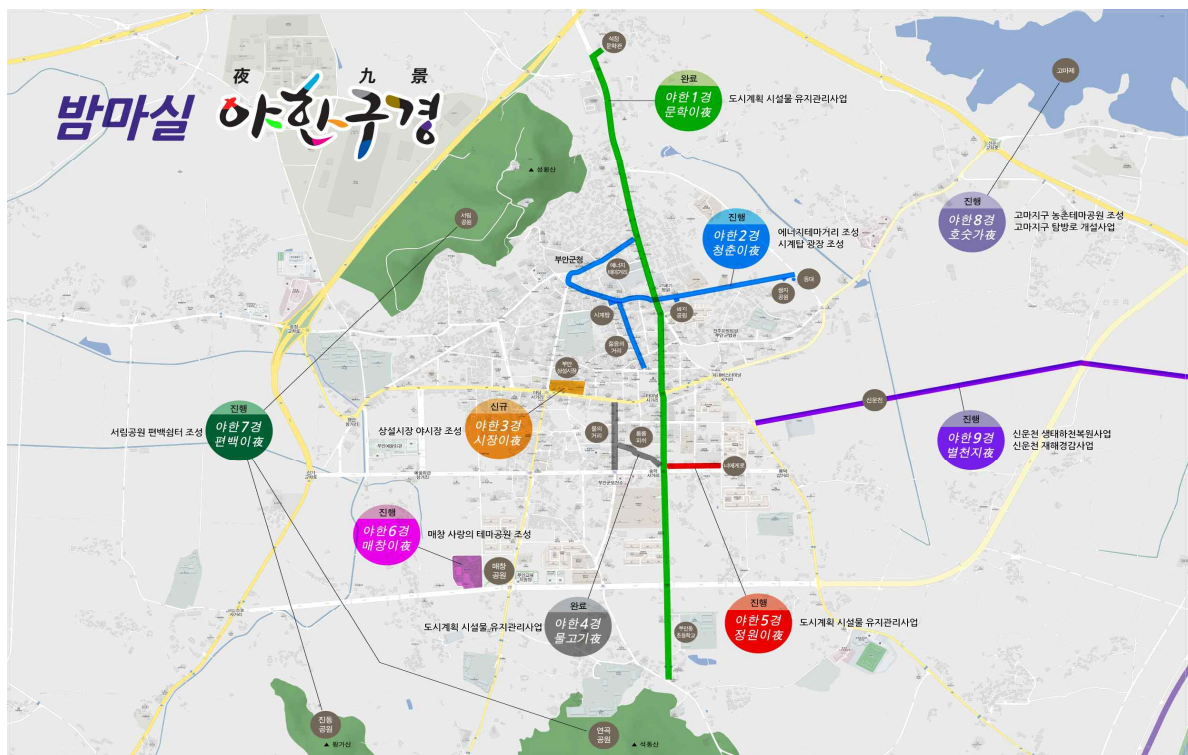
3. 사업추진체계 : “따로 또 같이”

- 9개의 단위사업은 ‘따로’ 추진하고, 밤마실 야한구경은 하나의 스토리로 ‘같이’ 홍보,
- 하드웨어(시설부분)는 ‘따로’ 추진하고,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부분)는 통합하여 운영

4. 단위사업은 ‘따로’ : 9개의 사업장

		
문학이책석정문학관)	청춘이책(에너지테마거리)	시장이책부안상설시장)
		
물고기이책(물의거리)	정원이책(너에게路 정원)	매장이책매장랑의테마공원)
		
편백이책(서림공원)	호숫가이책(고마제)	별천지이책(신운천)

5. 관광상품은 ‘같이’ : 밤마실 야한구경



3] 군민들이 불 밝히는 밤마실 夜한구경

1. 정책연구모임 <정책랩> 구성 및 활동('15.5월)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젊은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모여 내가 사는 도시를 고민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 의기투합하여 <정책랩>이 구성되었다('15.5월). 자생적인 연구모임으로 매주 월요일 7시 모여 <밤마실 夜한구경>의 명칭과 테마, 컨셉, 스토리텔링에 대해 토론하였고('15.5월~8월) 선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경관조명 MP가 완료되었다('15.10월)

2. 군정참여위원회 구성('16.12월)

7개월간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서포터즈 역할을 할 19명의 군정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군정참여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밤마실 夜한구경을 1개월간 집중 검토하였다. 회의시간은 보통 2~3시간 진행되었고, 별도의 분과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일반군민들에게 밤마실 夜한구경의 기획을 공개하고, 관심있는 군민 99인을 모아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 콘셉트를 보완하였다.

3. 밤마실 夜한구경을 논하다 : 99인의 원탁토론회 개최('15.12.29)

밤마실 夜한구경에 대한 군민토론회는 9개의 분임에서 각각 9명 중 1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분임은 9명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관계자로 구성되었고 열기는 뜨거웠다. 무엇보다도 계획 단계에서 시행하는 토론회여서 계획이 완료된 후 시행하는 주민설명회와는 취지와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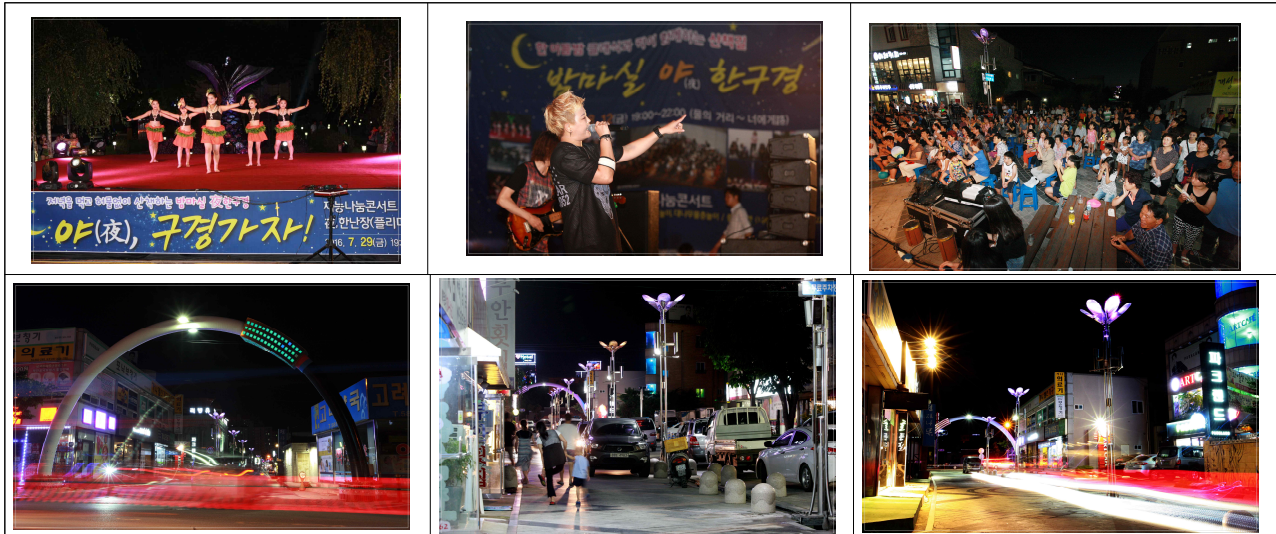
4. 밤마실 夜한구경의 재담꾼 : 지역문화해설사 양성 35명('16. 4월)

99인의 원탁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안건은 스토리텔링이었다. 이에 군산대학교와 협업하여 지역문화해설사 과정이 개설되었다. 2개월간(2.24~4.9)의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지역문화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고살이야기, 밤마실 夜한구경을 소개하는 마을재담꾼이다.

			
군정참여위원회 위촉식	원탁토론회 포스터	99인의 원탁토론회	지역문화해설사 수료식

5. 군민재능나눔 거리콘서트 『야(夜), 구경가자!』 개최('16.8월)

- 물의거리와 너에게路에서 2회에 걸쳐 진행한 군민재능나눔콘서트 『야(夜), 구경가자!』는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18개 단체 350여 명으로 회당 700만의 예산으로 연인원 6천명의 군민들이 참여하면서 가장 잘된 소축제였다는 평을 받았다.
- 재능나눔참가자들도, 참여군민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한여름밤의 콘서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아이들을 위한 전래놀이 체험과 플리마켓은 새로운 놀거리, 볼거리의 가능성을 열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의 외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재생한 좋은 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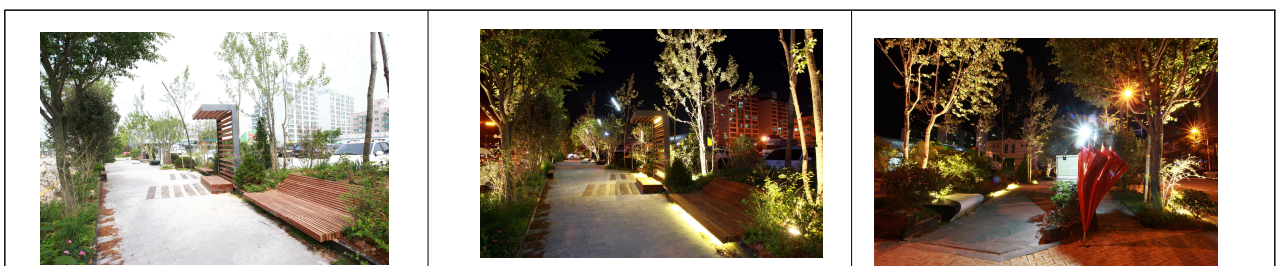
6. <푸른 부안, 우리 손으로>

-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수록 도심의 변화를 체감하던 주민들에게 공공디자인과 도시미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긍정의 아우라가 번져갔다. 내 상가 앞 담배꽂초도 방치하던 주민들이 부안의 시가지 청결에 나섰다.
- 부안교육지원청 외 20개 기관 및 단체가 화단 등 공동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15년 8월) 이어 이장협의회('15년 11월), 의용소방대('15년 12월)등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푸른 부안, 우리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1회 이상 내 집 앞, 내 상가 앞 청소 뿐만 아니라 도로변 화단 청소에도 나서고 있다.

4 주민반대의 임계점을 주민참여의 변곡점으로 전환

1. 부안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 계기('16.5월 준공)

- 너에게路 1구간(야한5경 정원이夜)은 오랫동안 인도 옆에 방치되어 있던 폐구거를 주민들의 산책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주민들 반응은 대체로 무난했고 700㎡는 산책하기엔 다소 짧은 구간이었던 터라 2구간을 확장하기로 했지만 주민들과 주차장 문제로 부딪히게 되었다.
- 2구간의 상가 앞 사업부지인 공터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었고, 정원이 조성될 경우 주차의 불편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게 이유였다. 연초부터 시작한 사업은 반대와 설득의 지난한 과정이 반복되었고, 몇몇 상가의 극심한 반대속에서 너에게路 2구간이 준공되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주민들은 길어진 산책로를 환영했고,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려는 사람들로 상가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다.



2. 젊음의 거리와 에너지테마거리(청춘이夜_夜한3경)의 별빛공원('16.10월 준공)

- 젊음의 거리는 한때 본정통으로 불리던 구도심의 변화가였다. 그러나 버스터미널이 이전하면서 변화했던 거리는 을씨년스러워졌고, 여전히 즐비한 여인숙과 술집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나 한때 영화로웠음을 추억하게 할 뿐 거의 휴·폐점 상태의 흉물로 남았다. 이곳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 도로를 보수하고 가로수를 심었지만 거리와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젊은이들이 찾지는 않았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인프라를 위해 인접한 곳에 에너지테마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기대치는 낮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던 너에게路가 인기명소가 되고 상가의 매출액이 늘자 도시재생사업과 거리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주민들의 지지로 별빛공원이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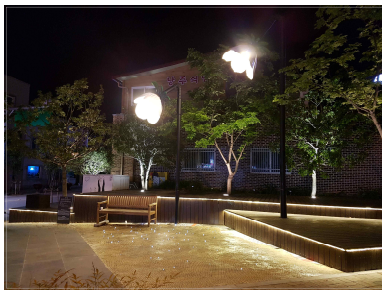
3. 신운천 도랑에서 수생정원(별천지夜_夜한9경)으로 거듭나기

- 부안읍내 외곽에 위치한 신운천은 혼한 농로 옆을 흐르는 도랑이었다. 10년 전에 농로 옆 좁은 두령을 넓혀 산책로를 만들었다. 주민들은 도보운동을 하거나, 산책코스로 활용했었지만, 도랑물의 오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아쉬움으로 오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작년 5월 부안마실축제 때 부안정명 600주년을 기념하는 낙우송 600주와 600가족이 결연하면서 소원표찰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준공된 후에는 수생정원으로 확장하기 위해 좀 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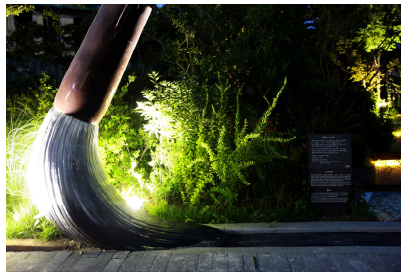


⑤ 도시가 “켜” 라면 도시재생사업은 “결” 이다

- 폐구거, 야산, 저수지, 하천 등을 활용한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밤마실 夜한구경」은 부안읍내 1박 2일 관광상품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 도시재생사업의 기획과 운영에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내 집 앞 공간을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각 9경의 풍경에는 스토리텔링이 더해지고 스토리텔러가 될 재담꾼이 양성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에는 정책랩이 구성되어 군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된 야한구경 인근에는 새로운 건축물과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도 도심활성화에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 변산반도 해안도로 관광지를 따라 이동하는 연간 천만관광객이 부안읍내로 유입되어 부안읍내 상권을 활성화 할 때까지 부안군민들은 야한구경에 불을 밝혀 나갈 것이다.
- 도시가 사람이 살아온 역사, “켜”라면, 도시재생사업은 그 도시와 사람들의 무늬, “결”이다. 도시재생사업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결은, 부안을 정원문화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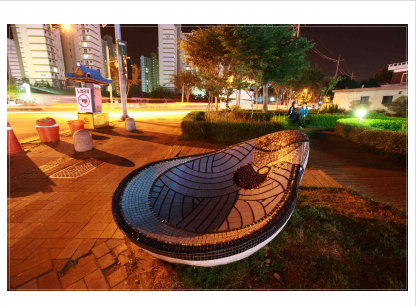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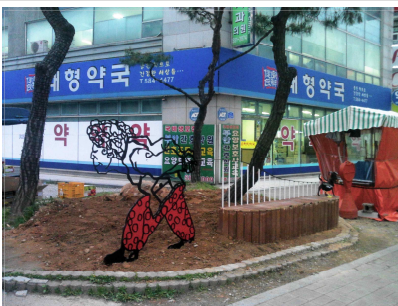
변산바람꽃 가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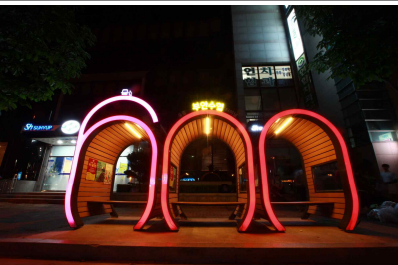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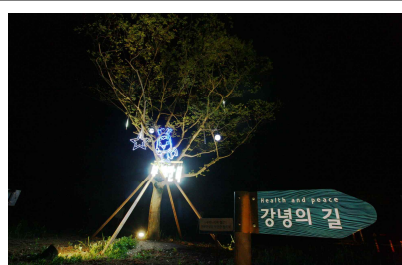
별빛으로 붓길



물의거리 물고기분수



읍내 곳곳에 숨어 있는 디자인 의자들



읍내로 진입하는 5곳에 조성된 오복게이트와 부안정명 600주년 기념 버스승강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전남 장성군
사 례 명	색(色)으로 소통(疏通)하는 옐로우시티 장성!
분 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관련공약	“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 ”
사례 요약	□ 추진배경 -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란색으로 도시를 디자인하여 곳곳에 향기나는 꽃과 나무가 가득한 감성도시 ‘향기나는 옐로우시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향기나는 옐로우시티』기본구상에 단계별 추진 - 장성의 색마케팅(“장성, Yellow를 입다.”) · 장성만의 색깔로서의 노란색 마케팅을 통한 정체성 확보 · Center : 중심도시 장성, Best : 최고도시 장성, Wealth : 부자도시 장성 -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실행(“도시, Yellow를 품다.”) · 도심속 노란색 디자인으로 도시의 가치와 주민 삶의 질 향상 · 고려시멘트 시설물, 애플탑, 애기사과거리, 장성역 광장, 중앙로, 도로 확장, 공공실버주택, LH 주공아파트, 신광철도박스 등을 통한 도시 재생 -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황룡강, Yellow로 물들다.”) · 황룡강(옐로우시티의 모티브)을 힐링, 체험, 관광을 담은 생태하천으로 복원 → 용 형상의 강을 5개 테마로 구성 - 주민참여의 소통행정(“Yellow, 자부심이 되다.”) · 사회단체, 유관기관, 기업체, 주민 등 참여로 도시재생(사계절 향기나는 지역) · 옐로우 식물은행, 옐로우 감성 디자인단, 네이밍 선정단 운영 □ 주요성과 - 지자체 혁신모델로 장성군만의 새로운 브랜드가치 인정 : 수상 15회 - 주민참여 도시 디자인 : 꽃동산 조성 및 관리 206개소, 자문활동 수시 - 색깔마케팅 ‘노란색 색채도시’로 관광자원화 : 황룡강 가을 노란 꽃잔치 개최(방문객 72만명/연) □ 기대효과 - 도심과 자연(황룡강)을 조화롭게 재생시켜 자연친화형 도시재생 모델 제시 - 주민참여 도시 디자인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자부심 고취 - 전국 최초 색으로 ‘도시 브랜드화’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색(色)으로 소통(疏通)하는 옐로우시티 장성

[공약명 :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

1 지역현황 및 문제제기

■ 지역현황

- 일반현황
 - 면 적 : 518.3km²(전남의 4.2%)
 - 인 구 : 47,358명(21,292세대, 전남의 2.5%)
 - 행정구역 : 1읍 10면 292리
 - 재정규모 : 3,256억원(재정자립도 8.3%)
- 지역여건
 -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대도시권으로 호남의 관문이자,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보유
 -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자연친화적 도시 이미지
 - 철새가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하천, **황룡강**
 - 치유의 숲이자 전국 최대 인공조림 편백 숲(779ha), **축령산**
(전국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한 지역으로 선정 - 2012. 4. 국립산림과학원 조사결과)
 - 오색 애기단풍의 백암산에 자리한 천년고찰 **백양사** 등

■ 문제제기

-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지 특화 부분 미약
- 지역 이미지 역시 별다른 특색이 없어,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못함.
- 오랜 기간 정체된 지역 분위기에 지역민 자긍심 저하

2 옐로우시티 조성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지역이미지 구축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란색으로 도시를 디자인**.
-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장성’**으로 만들어 가고자 함.

“왜 노란색인가?”

- ▶ 장성의 젖줄이자 우리군을 가로지르는 **황룡강(黃龍江)** 깊은 물에 장성지역을 수호했던 **누런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내려옴.
 - 이렇게 **장성군은 태초부터 ‘노란색’에서 비롯된** 지역이며 황룡강의 전설을 모티브로 ‘**옐로우시티**’브랜드가 탄생됨.
- ▶ **Center : 중심도시 장성**
 -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적색, 청색, **황색**, 흑색, 백색)의 중심은 황색이 자리잡고 있어 지리적으로 **호남의 중심**을 나타냄.
- ▶ **Best : 최고도시 장성**
 - ‘**황제의 색**’이라 칭하는 황색은 고종황제가 머물던 덕수궁 창틀에 유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최고도시 건설의지**를 담음.
- ▶ **Wealth : 부자도시 장성**
 - 황색은 금색으로 **부(富)**를 불러들이며 **부자농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음.

■ 필 요 성

- 장성군은 2000년부터 매년 사계절 꽃묘를 생산하여 경관조성
- 그 동안 별도의 마스터플랜 없이 당시 실정에 맞춰 꽃동산 조성
⇒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 이에 민선 6기, 꽃으로 도시를 디자인해보자는 구상에서부터 출발하여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
- ▶ **주민참여로 행정과 소통**하며 공약사업 추진.

3 옐로우시티 조성사업 주요내용

■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기본구상 및 추진

장성의 컬러마케팅

“장성, Yellow를 입다.”

- ① 장성만의 색깔로서의 노란색 마케팅을 통한 정체성 확보

-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장성」 영상 제작·홍보
- 「옐로우시티 바로알기」 리플렛 제작·홍보
- 「용과 노란색을 중심으로 한 예술과 도시환경」 상해 디자인 포럼 참여를 통한 해외마케팅
- 「옐로우시티 성공 창의력 향상」 워크숍을 통한 마인드 교육

도심의 마스터플랜

“도시, Yellow를 품다.”

① 노란색으로 디자인하여 가치있는 도시로의 변화

- 고려시멘트 시설물 →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 애플탑·애기사과거리 → 장성의 랜드마크이고 옐로우명품거리
- 장성역 광장 → 휴식과 만남이 있는 화합의 장으로 조성
- 중앙로 → 빈센트 반고흐의 그림을 옮겨놓은 듯한 가게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② 삶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재생으로 생기있는 도시로의 변화

- 도로 확장 → 2차선을 4차선을 확장하고 중앙분리대 화단을 설치하여 자연친화적 도로 조성
- 공공 실버주택 → 어르신을 위한 자연친화적,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
- LH 주공아파트 → 1차 330세대, 2차 456세대, 3차 150세대, 4차 150세대
- 신광철도박스 → 기존의 폭과 높이를 2배로 확장, 옐로우시티 디자인적용 주민 안전 확보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황룡강, Yellow 물들다.”

- ① 황룡강(옐로우시티의 모티브)은 힐링, 체험, 관광을 담은 생태하천으로 발전 → 용 형상의 강을 5개 테마로 구성한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황룡강은 ‘용(龍)’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

- **용의 머리** (“곳곳에 숨은 보물”)
 - 황미르랜드 : 여의주광장, 세계초 화원, 락가든, 이야기정원, 생태체험장, 오감놀이터, 습지원 조성
- **용의 앞발** (“우연히 만나는 행운”)
 - 용형상의 인도교, 미디어 파사트 연출, 황금알 공원 조성
- **용의 몸통** (“몸으로 느끼는 금빛 기운”)
 - 노란 꽃과 나무 정원, 장미터널, 전망대 설치
- **용의 뒷발** (“건강한 신체, 융성하는 문화”)
 - 흐르는 물길을 돌려 부지 확보를 통한 공설운동장 건립
- **용의 전체** (“견고 달리는 명품 길”)
 - 둘레길 조성 : 방구다리부터 제1황룡교 3.5km
 - 자전거도로 조성 : 장성호부터 오룡교 18km
- ② **장성의 전설과 문화를 주제로 한 특색있는 축제 개최**
 - 매년 10월 「**황룡강 노란꽃잔치**」 개최 : 전국에서 **가장 긴 꽃강** 조성

주민참여의 소통행정

“Yellow, 자부심이 되다.”

- ① 사회단체, 유관기관, 기업체, 주민 등 **주민참여로 행정과 소통**
 - 고려시멘트 사일로 도색 시공 : 비용 전액 업체 부담
 - 한국전력공사 지상변압기 램핑 시공 : 비용 전액 공사 부담
- ② **옐로우 식물은행** : 825천본/연간
 - 주민이 언제든 꽃동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식물 제공
- ③ **옐로우 감성 디자인단** : 15명(자문위원10, 운영위원5), 수시 운영
 -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시 전문가와 지역주민 참여 채널
- ④ **옐로우시티 네이밍 선정단** : 15명(공무원 4, 주민 11), 수시 운영
 - 공공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이름을 부여함으로 자긍심 고취
- ⑤ **장성읍 청년회** : 52명, 재능기부 봉사단체
 - 대표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옐로우카펫’ 설치 기부

4

주요성과

1. 장성군만의 새로운 브랜드가치 인정

- 사업초기 네이밍(Naming)의 중요성 수차례 강조
 - 장성군만의 고유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네이밍 구상
 - 브랜드 가치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 ‘옐로우시티’ ‘황미르’ 특허 등록 : 4건
(‘황미르’ : 순우리말로 ‘황룡’ 을 의미함)
 - ‘마스터플랜’ 에 대해 저작권 등록 : 1건

- 대외적으로 ‘옐로우시티’ 브랜드의 가치 인정 : 수상 10회
 - 2015년 대한민국 경영대상(창조경영부문 대상) : 6. 24.
 - 2015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공약이행부문 우수상) : 7. 16.
 - 2015년 한국 최고경영인상(리더십경영부문 대상) : 10. 15.
 - 2015년 스타브랜드대상(지자체 대상) : 12. 17
 - 2016년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 4. 25.
 - 2016년 도전한국인대상 신지식인상 : 6. 10.
 - 2016년 TV조선 경영대상(브랜드경영 부문) : 7. 20.
 - 2017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 1. 17.
 - 2017년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행정서비스 등) : 3. 14.
 - 2017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미래경영 부문) : 3. 29.
-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향상
 - **실버복지 1번지** : 공공실버주택,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사랑의 집, 보건소가 집약되어 최고의 주거, 복지, 의료서비스를 누림
 - **교육·문화·체육의 복합타운** : 공설운동장, 실내수영장, 흥길동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 군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집약되어 매력있는 도시이미지 제고

2. 주민 참여 도시 디자인으로 「소통행정」 실현

- 주민참여 현황, 역할 및 성과
 - 구성 : 사회단체(94개), 유관기관(29개), 기업체(21개/종업원 수 50인 이상), 지역주민, 행정(12실과, 11읍면),
 - 역할 :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추진(꽃동산 조성 및 관리)
행정기관은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에게 언제든지 식물을 제공하는 옐로우식물은행 운영을 통한 동참 유도(보조역할)
 - 성과
 - 별도 예산 투자없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화단조성 : 206개소
→ “주민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고, 가꾼다”는 의식 고취
 - 장성역 거점 꽃동산 12개소, 소규모 꽃동산 194개소 등
 - 주민 각자 집 앞 자투리 땅 혹은 화분 등에 꽃 식재 관리
- ※옐로우식물은행 “내나무갖기 캠페인” : 2016. 4. 22. 2017. 4. 5.
- 옐로우 감성 디자인단 운영
 - 구성 : 자문위원 10, 운영위원 5
 - 역할 : 옐로우시티 조성 전반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에 주민 직접 참여
 - 성과 :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고민하며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함으로 소통행정 실현

- **옐로우시티 네이밍 선정단 운영**
 - 구성 : 자문위원 11, 운영위원 4
 - 역할 : 공공시설물에 이름 부여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네이밍
 - 성과 : 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 장성호 데크길→**장성호 수변길**, 황룡강 징검다리→**용뽕뽕다리**, 어린이놀이터→**황미르놀이터**, 관문조형물→**옐로우게이트** 등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네이밍함으로써 군정참여 및 자긍심 고취
- **장성의 관문(고려시멘트) 민관협력 상호상생 해결**
 - **고려시멘트** 사일로 설계·시공비용 전액을 업체부담하며 옐로우시티 사업에 동참
- **한국전력공사 옐로우시티 조성에 적극 동참**
 - **지상변압기 랩핑** 시공비용 전액을 한전부담으로 **브랜드화**에 일조
- **장성읍청년회 옐로우시티 조성에 재능 기부**
 - **옐로우카펫** 설치 : 3개소
 - ‘**빈센트의 봄**’ 오프닝행사 주관 : 옐로우빵, 빵튀기 등 봉사
 - **농촌재능나눔** 지자체활동지원 국비 확보 : 2.5백만원



[주민참여 구축으로 조성된 꽃동산 사례]



[옐로우감성디자인단 운영사례]

3. 색깔마케팅 ‘**노란 색채도시**’ 로 관광자원화

- ‘**노란색**’ 이라는 색깔을 활용해 꽃과 나무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명소 조성
- 「**빈센트의 봄**」이라는 주제로 주민참여 소규모 축제 개최
 - 4월에 가야할 축제 10선 선정(참 좋은 관광뉴스)
 - 순수한 입소문만으로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빈센트 반고흐 벽화거리**」 조성 : 백양사 일원(29점)
 - 천에 유화로 직접 그려 코팅, 부조형태(내구성 10년 이상)
 - MBC 경제매거진M ‘**빛날**’ 방영 : 2017.6.3.
- 「**황룡강 노란꽃잔치**」 축제 : 72만명, 144억원 부가가치 창출
 - 황룡강의 전설을 가을꽃으로 연출, 노란색 스토리텔링 등 화려한 볼거리 제공
 - 주민주도 운영으로 거버넌스형 축제 모델이 됨 : 31개 사회단체 참여

- 실질적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상품개발
 - '황미르빵' 개발 : 광주여대(식품영양학과)와 기술이전 협약관내 제과점 4곳 전수
 - ※ 옐로우도시락, 파이, 쿠키, 떡, 수제맥주, 치킨 등 특산품 추가 개발
- 황룡강르네상스프로젝트를 통한 '스토리텔링' 완성
 - 옐로우시티 정서가 깃든 힐링공간으로 재탄생 : 옐로우 생태조경으로 하천 복원
 - 황룡강르네상스프로젝트 우수성 인정되어 국비 확보 : 102.5억원

4. 설득과 공감을 통한 장기 미해결 과제(군 진입도로 확포장)해결

- 현황 : 십 수년 전부터 위협하고 좁은 「군 진입도로(고려시멘트 앞 도로)」 확·포장 필요성 제기, 거주민 반발(보상 미합의) 로 번번이 사업 추진 좌절.
(주민과의 갈등 유발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포기)
- 개요 : 민선6기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일환, '도심 재정비 사업' 시행
(장성군의 **숙원과제**인 군 진입도로(고려시멘트 앞 도로) 확포장 포함)
- 추진과정
 - 2016. 3월 : 1차 감정평가 실시(최초 보상 통보), 주민들 보상 거부
 - 2016. 3월 ~ : 대상 지역 '주민간담회' (8차) 실시(경관도시과)
간담회(8차) 중, 군수 2회 참석(사업 필요성 설명 및 협조요청)
담당 부서장 및 직원, 해당 주민과 수시 접촉(설득)
 - 2016. 12월 : '토지 보상가 재감정 실시'(1회 감정 후 1년 내, 재감정 불가)위한 토지 수용 신청
 - 2016. 12월 : 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재감정가 수용
 - 2017. 1월 : 토지보상 및 본격 사업 추진
 - 2017. 7월 현재 공정율 25%('17년 12월 준공 예정)
- 성과
 -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군 역점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성원 및 적극 참여 도모
 - 위험도로 구조 개선 및 확·포장으로 군민·방문객 안전 확보 기여

5 기대효과

- 도심과 자연(황룡강)을 조화롭게 재생시킨 자연 친화형 도시재생 모델 제시
- 주민참여 도시 디자인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자부심 고취
- 전국 최초 컬러를 통한 '도시브랜드화'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전라남도 완도군
사 례 명	작은 섬 폐교의 드라마틱한 변신 “느린섬 여행학교”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슬로시티 청산도 에코뮤지엄 조성
사례요약	1. 추진목적 ○ 청산도도 폐교를 비롯한 유휴시설을 재활용한 ○ 관 위주의 추진이 아닌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2. 주요내용 ○ 하드웨어 분야(폐교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 - 폐교(청산중학교 동분교) ⇒ 느린섬 여행학교 - 구) 청산면사무소 ⇒ 향토문화전시관 - 구) 새마을창고 ⇒ 마을 공동민박 - 구) 마을회관 ⇒ 작가의 집 ○ 소프트웨어 분야 - 느린섬 여행학교 힐링메카 만들기 용역, 6차산업 육성, 슬로푸드 체험 ○ 주민갈등해소 분야 - 주민협의체와 개인과 갈등, 주민과 관광객간 갈등 해소 ○ 주민참여 분야 - 슬로시티청산도영농조합법인, 슬로푸드명품화사업단 구성 및 운영 3. 사업효과 ○ 청산도 관광객 매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젊은층의 외부 유출 현상 감소 ○ 청산도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보 민선6기 청산 관련 중앙부처 사업 선정 실적 ○ 2014 슬로푸드명품화사업 : 30억 - 농림축산식품부 ○ 2015 주민공동체완도섬여행등대사업 : 731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 2015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 : 5억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섬 폐교의 드라마틱한 변신 “느린섬 여행학교”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I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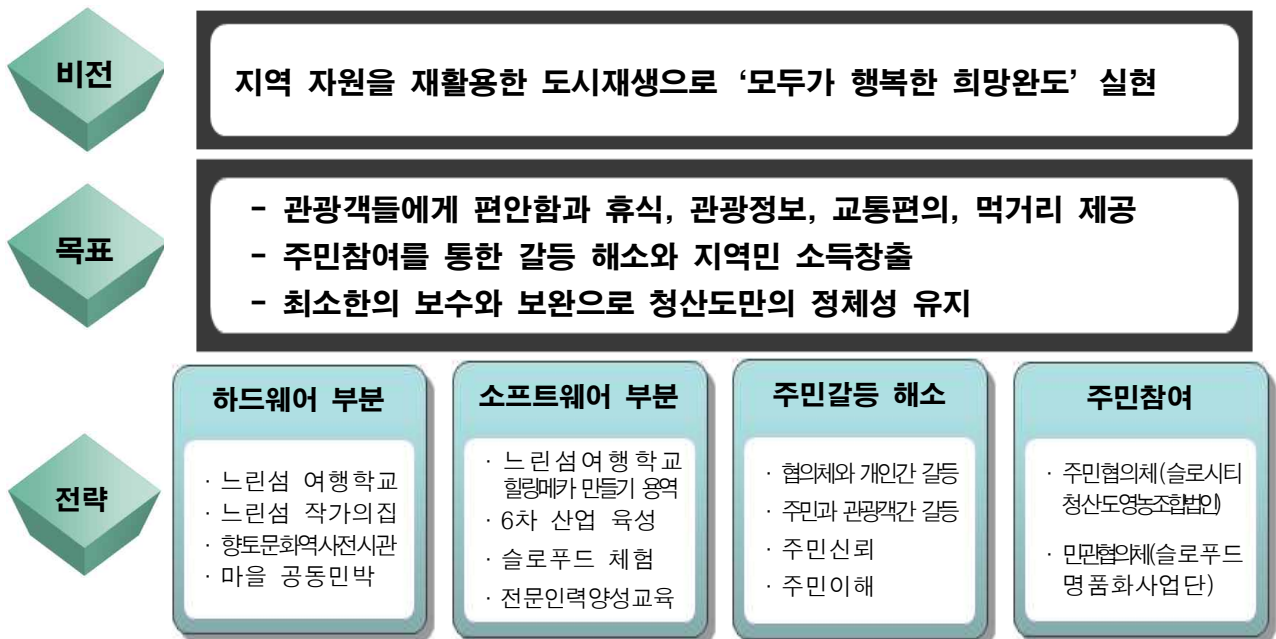
- 느린섬 여행학교가 있는 청산도는 전남 완도에서 19.2km 떨어진 다도해 최남단섬으로 완도항에서 뱃길로 50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 한 때는 인구가 12,000명이나 될정도 사람도 많이 살던 곳이었는데 젊은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 지금은 인구 2,450명으로 줄었고 남아 있는 주민들도 대부분 어르신들이다. 65세 이상 비율이 41%로 전국 최고 노령화 지역(우리나라 평균 12.7%)이다
-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다 보니 학교는 폐교가 되고 젊은사람들이 살던 집은 빈집이 되어 점점 폐가가 되어갔다.
-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고 미국 CNN이 발표한 대한민국 가장 아름다운 섬 33선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낮에는 관광객들로 발디들 틈 없이 붐비지만 마지막 배가 떠나고 난 저녁에는 다시 적막해지고 고요해지는 양면성을 지닌 곳이다.
- 이에 청산도내 폐교, 폐창고 등 유휴시설을 재활용한 창의적인 재창조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청산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 숙박과, 체험, 먹을거리, 교통수단 이용, 정보교환을 할수 있는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느린섬 여행학교를 중심으로 청산도 내 유휴시설의 재활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청산도 주요지정 현황 >

-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정
-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인증 세계1호 슬로길 지정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탐방로 지정
- 2012년 CNN선정 대한민국 가장아름다운 섬 33선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청산도 구들장논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 지정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최고 가족체험 여행지
- 2014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청산도 구들장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 2017년 청산도 상서마을 환경부 ‘최고 명품마을’ 선정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100선 선정’

추진목적

-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는 청산도지만 편리한 도시생활에 익숙한 관광객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어린이 동반 가족들에게 무조건 느림과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이 필요하였다.
- 폐교 부지와 섬 내 유휴시설을 단순히 숙박시설로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산도 만의 독특한 문화와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고, 관광정보 교류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센터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 ~ 현재
- 사업대상
 - ◆ 하드웨어 : 느린섬 여행학교, 느린섬 작가의 집, 향토문화전시관, 마을 공동민박 등 폐교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
 - ◆ 소프트웨어 : 느린섬 여행학교 힐링메카 만들기 용역, 슬로푸드 체험 6차산업 육성, 전문인력양성 교육
 - ◆ 갈등해소 : 주민협의체와 개인과 갈등, 주민과 관광객간 갈등, 주민 신뢰, 주민이해, 민관협의체 구성
 - ◆ 주민참여 : 슬로시티청산도영농조합법인, 슬로푸드명품화사업단

○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창조지역사업					관광자원화사업				슬로푸드명품화사업					
		구 분	총 사업비	'14년	'15년	'16년	구분	총 사업비	'14년	'15년	구분	총 사업비	'15년	'16년	'17년	'18년
총계	3,946	소계	350	100	125	125	소계	500	300	200	소계	3,098	355	721	918	1,104
국 비	2,078	국비	280	80	100	100	국 비	250	150	100	국비	1,548	177	360	459	552
지방비	1,868	지방비	70	20	25	25	지방비	250	150	100	지방비	1,548	177	360	459	552

추진실적

< 하드웨어 부분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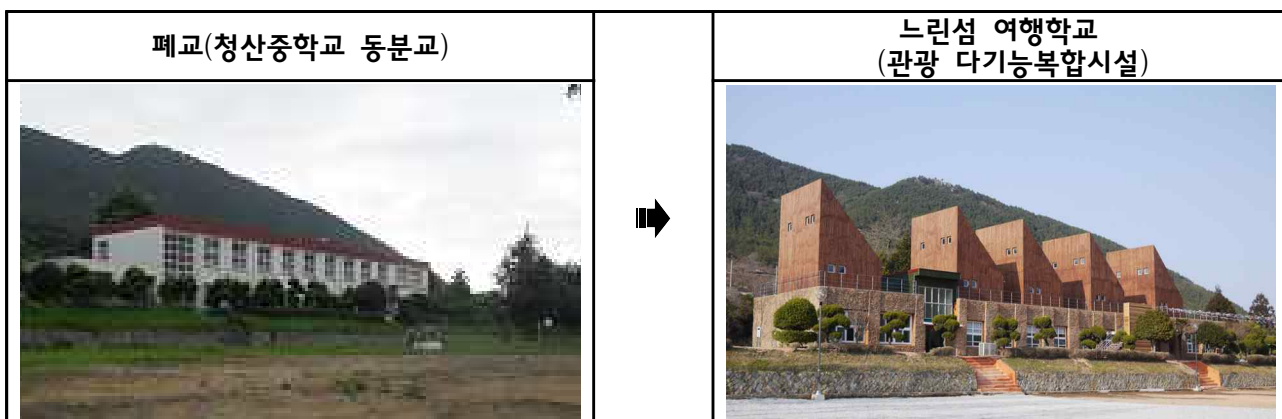
☐ 느린섬 여행학교(구. 청산중학교 동분교) 리모델링 및 기능변화

☞ 2009년 폐교된 청산중학교 동분교를 느린섬 여행학교로 재생하여 관광객들에게 숙박은 물론 슬로푸드 체험, 관광정보, 교통편의 제공하는 관광객을 위한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함.

○ 시설현황

- 본관 1층 : 슬로푸드체험관(식당 80석), 홍보관
- 본관 2층 : 숙박시설(가족실 5동, 30인 수용)
- 관 사 동 : 숙박시설(가족실 5동, 30인 수용)
- 기 타 : 대중교통 휴게소

○ 운 영 : 민간위탁(슬로시티청산도영농조합법인)



☐ 느린섬 작가의 집(구 신흥리 마을회관)

- 신흥리 마을회관이 신축되면서 남게 된 곳을 재활용한 곳으로 '채움'과 '비움' 2동으로 재탄생
- 산도를 찾는 예술가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작품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공



□ 향토역사문화전시관(구 청산면사무소)

-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1999년까지 청산면사무소로 사용되었던 건물
- 최소한의 보수와 보관을 통해 용도 폐기된 면사무소 건물을 전시실과 전통체험관으로 재탄생



□ 마을 공동민박(태풍피해로 방치된 구 권덕리 새마을공동창고)

- 태풍 피해로 폐허가 된 구 새마을창고를 리모델링을 통하여 마을 공동 운영형태의 숙박시설로 조성
- 마을이장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낚시인들이 많이 찾아와 부족한 숙박수요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공동 부수입원으로 활용



< 소프트웨어 부분 >

□ 느린섬 여행학교 힐링메카 만들기 영역

- 청산도 대표 공적휴양시설 '느린섬 여행학교'를 활용하여 체류형 단체관광 수요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발전 동력으로 가치 창출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3개년)
- 총사업비 : 350백만원(국비 280, 지방비 70)
- 주요내용 : 여행학교 활성화 전략, 체험(특화, 연계)관광 콘텐츠 개발 등

□ 6차산업 육성

- 수제맥주 산업
 - 청산도 주민들이 직접 키운 청보리를 주원료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판매
 - 기간 : 2015 ~ 현재
 - 운영 : 민간위탁(청산도슬로푸드명품화사업단)

□ 슬로푸드 체험

- 기 간 : 연중(축제기간 프로그램 확대)
- 체험내용 : 해초 비빔밥, 슬로푸드 도시락, 해초쿠키, 해초빵, 조개공예체험
- 운 영 : 민간위탁 슬로시티청산도영농조합법인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슬로커피 바리스타 양성
- 수제맥주 브루마스타 양성
- 생태문화관광해설가 양성

< 주민갈등 해소 >

- ☞ 갑작스러운 인기로 관광객이 붐비자 지역민중 일부는 관광객들로 부터 수입을 올리는 반면 농작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관광객들을 반기지 않는 등 주민들의 반응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 주민과 주민협의체와 갈등 해소

- 느린섬 여행학교를 운영하는 슬로시티청산도영농조합법인은 개인적으로 펜션, 민박 등 숙박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과 손님 유치에 중첩이 되지 않도록 단체손님을 유치하고 지역주민들은 가족단위 손님을 유치하는 것으로 갈등 예방

○ 주민과 관광객과의 갈등 해소

- 갈등 주요인인 여객선 이용문제 해결 (관광철 승선인원 초과로 주민들이 배를 못타는 경우 발생)
- 2016년 5월 청산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중 가장 큰 여객선(기존 500명 수용 ⇒ 신조 1,000명 수용)을 신조하여 운영하고 있고
- 관광객에 밀려 청산 주민들이 배를 못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청산 주민 우선 할당제(승선인원 20%) 확보하는 기준을 도입하여 갈등을 해소.



○ 주민신뢰, 주민이해

- 행정에서 추진하는 청산도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추진전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갖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있음.

< 주민참여 >

- ☞ 청산도는 빼어난 경관과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섬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청산도의 매력을 깊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통해서 청산도 발전에 대한 의식향상을 거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 주민협의체 구성

- 슬로시티청산도영농조합법인
 - 구성인원 및 형태 : 10명(청산 주민) / 예비사회적기업
 - 주요활동 : 느린섬 여행학교 식당, 느림카페, 조개공예체험장 운영
- 슬로시티푸른섬협동조합
 - 구성인원 및 형태 : 55명(당리마을 주민) / 마을기업
 - 주요활동 : 축제기간 서편제 주막 운영으로 마을 수익창출

□ 민관협의체 구성

- 청산도슬로푸드명품화사업단
 - 구성인원 및 형태 : 15명 / 관·학·연 공동구성
 - 주요활동 :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를 통한 6차산업 달성
 - 제품생산 : 청산도내 해조류, 해산물, 농산물 생산 및 구매
 - 제품가공 및 판매 : 수제맥주, 전복게장, 삼채김치, 저염된장 등
 - 체험활동 : 휘리체험, 슬로푸드체험, 조개공예체험, 구들장논체험

추진성과

○ 청산도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	2010	2014	2015
관광객	72,028	199,912	338,872	336,742

☞ 매년 섬 주민들의 100배가 넘는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되고 젊은층의 외부유출현상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 또한 청산도의 정체성이 자리잡아 가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되어 청산면 주민들 스스로가 청산도를 아끼고 가꿔야된다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중앙부처 사업 선정도 이어져 지역이 발전되고 있다.

○ 대외 수상 및 사업선정 실적

민선6기 청산 관련 중앙부처 사업 선정 실적

- 2014 슬로푸드명품화사업 : 30억 - 농림축산식품부
- 2015 주민공동체완도섬여행등대사업 : 731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 2015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 : 2억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전국 > 광주/전남
슬로시티 청산도 주민들 '변화의 바람' 이끈다

등록 2015-12-02 15:45:41 | 수정 2016-12-30 16:00:35

【원도=뉴스1】구갈용 기자 =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가 주민들의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재도약을 꾀한다.

전남 원도군은 2월 '국내 슬로시티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슬로시티본부'가 운영하는 '슬로푸드리얼푸드'를 25일부터 25일부터 3월동안 청산도 느린여행길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3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슬로푸드리얼푸드 전문가를 양성해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슬로시티본부 손대현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강사들이 2박3일 동안 현장실습과 함께 '슬로와 슬로시티', '에코투어리즘이란?', '지역사회와 관광'이란 주제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에게는 국제한국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가 주는 공식 수장이 발급되고 참가자들이 한국자연농업학원의 전문자격증도 수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원도군은 지난 18일부터 2박3일 동안 청산도 지역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 통영리조트와 남해 다대포를 거쳐 한국자연농업학원의 전문자격증도 수여될 예정이다.

원도군 관계자는 "슬로푸드리얼푸드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슬로시티 청산도의 발전을 위한 재도약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도군 '청산도 슬로푸드 사업' 선정

입력시간: 2015. 04.15. 00:00

원도군은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사업'이 2015년 할토산업 육성 대상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원도군이 따르면 청산도를 1·2·3차 산업이 융합된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슬로푸드 명품화사업을 할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응모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

청산도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으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으며 세계슬로길 1호로 인증됐다.

특히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구들장 논과 돌담, 고인돌, 당지, 조문 등 청산도만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이 잘 어우러져 할토산업 육성대상으로 거각이라는 평가다.

이번 할토산업 육성사업 선정은 할토자원 성격과 부합성, 산업화 가능성, 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원도군은 국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세계중요농업유산 구들장 논의 보전과 화와 섬 농산물을 이용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청산도만의 독특한 가공식품, 식물 개발과 명품화를 통해 슬로푸드와 관광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산도 1000+급 여객선 취항

등록 2016-05-12 17:45:23 | 수정 2016-12-30 10:59:49



【원도=뉴스1】구갈용 기자 = 전남 원도군과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2일 원도군 청산면 도청한 선착장에서 신우철 원도군수와 강남경 전남농협본부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산호 취항식을 가졌다. (사진=전남농협 제공)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경상북도 칠곡군
사 례 명	근대 역사의 그늘, 재생의 빛을 드리우다 - 연호2리 새뜰마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및 권역개발 사업
사례요약	☐ 추진배경 ○ 위 치 : 칠곡군 지천면 연호2리 863-186번지 일원 ○ 인 구 : 132가구, 192명 (65세 이상 100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87명 ○ 마을특징 - 광복 이후 대구 대명동 공동묘지 일원에 거주하던 한센인(나환자)들의 강제 이주를 통해 형성된 마을 - 1951년, 1953년 도립나병원, 국립칠곡나병원으로 승격되면서 인구가 급증 - 1969년 국립나병원 통폐합 정책에 따라 양성환자는 이송되고, 완쾌된 환자가 정착하면서 현재 마을로 유지 - 양계를 생업으로 삼고자 슬레이트 계사를 건축하고 계사에서 닭과 함께 생활하는 열악한 삶을 이어갔으나, 고령화와 한센인 2세대의 지역 이탈로 190여동의 계사가 폐계사로 방치되어, 외부인이 방문을 꺼릴 정도로 마을의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으며, 고가의 처리 비용으로 주민들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 ☐ 연호2리 새뜰마을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 ○ 사 업 비 : 2,044백만원 ○ 주요내용 : 공동급식시설 정비 1개소 / 상수도 관로 개제 24km / 폐계사 철거 133동 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1식 ☐ 도시재생의 시작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새뜰마을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어 연호2리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폐계사 정비를 위주로 사업 신청하여 20억여원의 사업비 확보 ○ 새뜰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고향 희망심기사업, 환경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국토부 주거현물급여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사)해비타트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마을의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 ○ 특히,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인 주민의 자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한 중요 결정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2차례 선진지 견학, 전문가 워크숍, 커피공방, 목공공방 교육 등을 시행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

근대 역사의 그늘, 재생의 빛을 드리우다.

- 연호2리 새뜰마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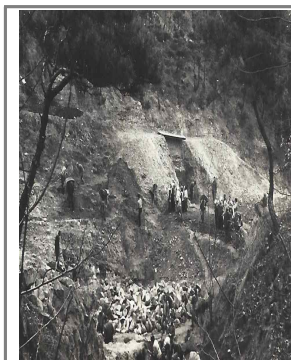
추진배경

□ 국가의 강제 이주정책에 의한 마을 형성

- 광복 이후 대구 대명동 공동묘지 일원에 거주하던 한센인(나환자)들 칠곡군 지천면 연호2리 863-186번지 일원, 강제 이주 정책으로 형성
- 도립나병원, 국립칠곡나병원 (1951~1953) 지정으로 전국에서 1,300여명의 한센인을 강제 이주, 1969년도 국립나병원 통폐합 정책에 따라 병원을 폐쇄하고 양성 환자들을 소록도 등으로 보낸 후 완치환자 391명이 남아 현재의 마을을 이룸

□ 차별과 편견, 외부와 고립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 고충

- “건강사회복귀”란 현수막을 내걸며 ‘칠곡농장’이라 명명하고, 15~45인당 1필지씩을 공동소유로 불하하며 가구당 병아리 50마리씩 분배하여 생계 밀천을 삼도록 한 것이 양계의 시초이며 이 무렵부터 180여동의 슬레이트 계사가 건축되기 시작함. 당시 계사 한칸을 개조하여 방을 만들고, 닭과 함께 생활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감



“지천면민들이 한센인 못 들어오게 낮이나 창 들고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한 밤중에 미군들 트럭 뒤에 모포, 천막에 짐을 싸서 산 위에서 굴렀어, 그리고 천막치고 죽은 듯 살았지.”



“처음엔 방 안에서 키웠어. 그러다가 산을 개간하면서 축사를 지어서 그렇게 살게 된 거지. 재래식이지, 처음엔 등짐 짊어지고 다 장사한 거야.”

-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계속되는 조류독감으로 양계업의 폐업이 이어지고, 한센인 103명 전원이 군에서 지급하는 기초수급생활자로 생활하고 있음. 칠곡 농장은 칠곡군청과 35km나 떨어진 먼 거리로 연호리 70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를 개간하여 조성된 마을 특성상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가파른 곳에 계단식으로 터를 닦아 조성되어 논 농사 등 작물 재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

- 연호2리에는 주택 바로 앞에 사용중인 계사와 방치된 폐계사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
- 방치된 폐계사는 붕괴 위험, 쓰레기 투기 등으로 마을의 슬럼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나 고가의 처리비로 인해 처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상황



Ⅱ 재생의 시작은 주민으로 부터

□ 주민중심의 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2015 새뜰마을사업에 마을 회의를 통해 공모 결정
- 공모사업선정으로 2,044백만원(국비 1,551 지방비 493) 확보
- 새뜰마을사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마을주민 13명으로 주민주도형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순서, 대상 등 새뜰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칠곡군과 함께 검토하고 결정하는 등 12회 이상의 회의를 거치며 주민 스스로 합의하고 결정한 기준에 따라 도시재생을 추진



- 칠곡군과 마을에서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별도 사업비 20백만원을 편성하여 사전 역량강화 실시하고, 새뜰사업비 중 휴먼케어 사업비를 활용하여 마을 내 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마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를 제공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

1) 전문가 워크숍

- 도시재생의 의미와 주민의 역할 등('15. 6. 23.)



2) 마을 경관 개선 사례 탐방

- 안동 운흥동 벽화마을 등 ('15. 6. 23.)



3) 연호2리 마을 탐방

- 마을의 가치와 자원의 중요성 탐구 (경북대 이정호 교수), ('16. 7. 13.)



4) 마을 경관 개선 사례 탐방

- 진안군 꽃잔디 마을 ('16. 10. 28.)



5) 마을 경관 개선 사례 탐방

- 진안군 원연장 마을 ('16. 10. 28.)



6) 마을미래설계 현장포럼

- 마을자원찾기, 발전계획 수립, 마을 비전 선정 ('16. 10월 ~ 11월.)



7) 도시공간재생 사례 탐방

-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 한옥마을 등 ('17. 3. 16.)



Ⅲ 도시 재생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의 추진

□ 새뜰마을사업 공모선정

- 사업명 : 연호2리 새뜰마을사업
- 사업기간 : 2015 ~ 2017
- 사업비 : 2,044백만원
- 사업내용 : 공동급식시설 정비 1개소 / 상수도 관로 개체 2.4km
폐계사 철거 133동 / 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1식

□ 추진내역

○ 폐계사 철거

- 마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폐계사 133동을 순차적으로 철거
- 마을소유 토지의 슬레이트 건물은 마을의 역사적 지역자원으로 보존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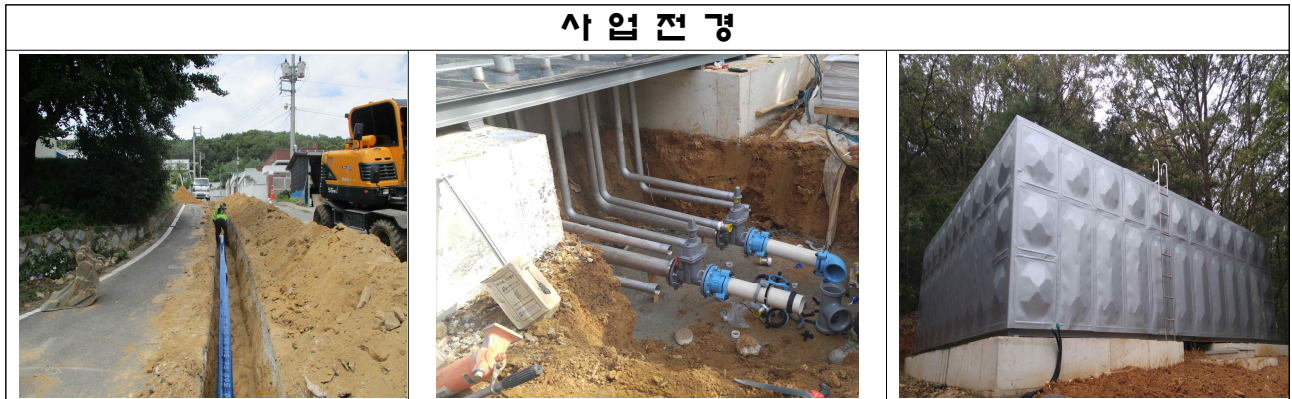


○ 공동급식시설의 정비



○ 상수도 관로 정비

- 과거 개인 사유지를 지나던 노후된 급수관 2.4km를 정비하고 칠곡군 수도사업소와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급수 탱크를 설치하여 마을의 안정된 상수도 급수 시스템 확보



○ 주민의 학습·커뮤니티 공간 마련

- 방치되었던 마을 슈퍼를 리모델링하여 마을 어머니들이 커피공방 운영을 위한 학습의 공간이자 커뮤니티 형성의 공간으로 활용



IV 연계사업 발굴

□ 다양하고 종합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뜰사업과 연계 추진

- 지역발전위원회 고향 희망심기 - KBS 6시 내고향 촬영
- 국토부 주거현물급여사업 - 24가구, 70백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중
- 농림부 주민역량강화사업 - 마을미래설계 현장포럼 및 소규모 사업
- 농림부 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 작은목욕탕 건축
-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주택 및 주택 부속동 슬레이트 제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 (사)헤비타트 희망의 집수리 사업 - 마을내 독거 노인 4세대 주택개보수

(사)헤비타트 희망의 집수리 사업 	고향 희망심기 (6시 내고향)  새들마을 사업 도시·농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마을 작은목욕탕  대구MBC뉴스 동네한바퀴 8 동네한바퀴 정 연호2리 작은 목욕탕 준공 동영상 더보기 칠곡군 지천면에 '작은 목욕탕' 준공
주민역량강화사업 (마을입구 환경개선)  	

V

향후계획

□ 계속적인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

- 새들마을사업 이후의 마을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문체부 주관 “문화 마을사업”, 행자부 주관 “지역사랑 클라우드 펀딩”에 공모, 지원하였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미선정
-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기초생활인프라 6억 확보
 - 잔여 폐계사 철거를 마무리
 - 주민 공동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 재생을 이어나갈 계획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개서

지자체명	경상남도 남해군
사 례 명	힐링의 섬 보물섬 남해, 사계절 야생화 피는 보물창고
분 야	1분야·사회적경제 분야(), 2분야·도시재생 분야(✓), 3분야·청년문제해소 분야(), 4분야·참여예산제 분야(), 5분야·지역문화활성화 분야()
관련공약	아름다운 꽃동산(꽃길) 조성
사 례 요약	□ 사업추진배경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자생화 관광 자원화 공모사업’에 힘입어 지역의 자생화(야생화)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만의 고유한 생태테마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있음. 군은 2015년 ‘보물섬 800리 히어리길 조성사업’, 2016년 ‘드르개 불로장생길 조성사업’, 2017년 ‘팔색조 노니는 화전(花田)’에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함. 군은 ‘생태관광’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이란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휴양을 즐기면서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관광 형태이며 예로부터 화전(花田)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야생화들의 천국으로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음 특히, 남해군 전체에 사계절 야생화가 피는 보물창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아름답고 편안한 도로변에 사계절 꽃동산 조성 ○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보물섬 관광남해 인프라 구축 ○ 주민자치 환경개선사업으로 소득향상 및 관광자원화 □ 사업추진내용 ○ 보물섬 꽃길, 꽃밭 조성 : 9,894㎡(소화단 34개소) ○ 보물섬 화전길(보물섬 800리길) 조성 : 20ha/37km ○ 보물섬 남새정원 조성(제2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 ○ 원예예술촌 사계절 꽃동산 조성, 매년 꽃밭축제 개최 ○ 두모 유채꽃단지, 장평소류지 톨립단지, 고현 독방길 유채꽃 축제 : 41개소 15.3ha ○ 각 지역별 테마별 꽃밭(수국, 능소화, 금계국 등) 조성 ○ 민간정원 제1호 섬이공원 조성

일링의 섬 보물섬 남해, 사계절 야생와 피는 보물창고

1. 사업추진 개요

- 도로변 주변 빈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꽃밭·꽃길 조성
-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
- 주민자치 남새정원 조성으로 환경개선 및 주민여가 활용

2. 보물섬 꽃동산 야생화단지 조성

- 귀여운 히어리 꽃이 만발하는 남해의 봄

2015년 선정된 '보물섬 800리 히어리길 조성사업'은 남해군에서 많이 자생하는 히어리를 관광자원화한 사업으로 사업의 이름에 있는 '800리'는 남해군 해안선의 총 길이임. 이 사업의 이름처럼 도로에 심어져 있는 히어리 나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히어리 군락을 볼 수 있음.

특히, 남해군은 이동면 신전리 신전숲 주변에 야생화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단지에는 히어리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화들이 심어져 있어 계절마다 다른 꽃들을 구경할 수 있음. 또한 한려해상 국립공원 바로 옆에 있어 야생화와 바다의 아름다운 조화를 감상할 수 있음.

- 두모마을의 독특한 다랭이 꽃밭 조성

이동면 신전숲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면 특이한 경관을 마주하게 되며 경사진 다랭이 밭을 볼 수 있음. 산비탈을 층층이 깎아 만든 다랭이 밭은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던 남해군만의 특성 때문에 만들어진 독특한 농사 형태임. 이곳은 2016년 '드르개 불로장생길 조성사업'의 사업지로 선정된 후 다랭이 꽃밭으로 재탄생했음.

다랭이 밭의 층마다 서로 다른 야생화들이 심어져 있어 꽃이 만개하는 봄과 가을을 기대하게 되며 또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전국의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음.

- 천연기념물 팔색조가 노니는 남해

팔색조는 우리나라 남쪽에서 주로 서식하며 천연기념물 204호로 지정된 희귀종임. 그렇지만 남해에서는 주민들이 평소에도 울음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은 수가 서식하고 있음

남해군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팔색조의 특징과 습성 등을 교육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팔색조를 소개할 수 있는 해설사로서의 역할을 맡기겠다는 계획임

3. 남해군내 보물섬 꽃길, 꽃밭 조성

- 남해군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까지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해 남해군은 화전(花田)이라는 옛 지명도 살릴 수 있었을 뿐 더러 생태관광을 취지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남해의 유명 관광지인 독일마을 외에도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야생화 관광단지를 조성 중임

○ 남해군 꽃나무 연도별 식재현황

(단위 : 본)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합 계		130,300	202,000	155,000	227,000	
식재현황	팬지	3,300	63,000	52,000	79,000	
	디기탈리스	2,000				
	비올라		37,000			
	수국		2,000		10,000	
	매리골드	63,000	35,000	31,000	60,000	
	페츄니아	37,000				
	코리우스		10,000			
	다알리아		30,000	24,000		
	일일초			10,000	10,000	
	임파첸스				10,000	
	베고니아			8,000	8,000	
	꽃양귀비				50,000	
	꽃양배추	25,000	25,000	30,000		

- 보물섬 화전(花田)길은 보물섬 800리길로 이어지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꽃길 지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설천면 노량마을과 삼동면 전도마을을 잇는 해안변을 따라 20ha의 규모로 37km구간에 유채, 코스모스를 조성하여 5월에는 보물섬남해 전국마라톤대회와 9월에는 전국 자전거 축전을 개최하고 있음.

- 각 지역의 테마별 꽃밭·꽃길 조성 광경<사진>



4. 보물섬 남새정원 조성

- 남새정원 조성은 제2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군내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채소, 야채 등을 길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보물섬 남해 곳곳에서 주민 스스로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어나가는 제2새마을운동 남새정원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남새밭 조성사업은 지역 내 방치된 빈 땅을 활용, 지역주민들에게는 힐링의 장소이자 관광객들에게는 특색 있는 불거리와 체험장소 등을 제공해 지속적인 주민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창선면 주민들은 남해바래길 6코스 말밭굼길에 해당하는 추섬공원에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머무를 수 있는 명품정원을 조성하고 국화, 창포, 황금줄사철, 초롱꽃 등 30여종의 다양한 꽃을 심는 등 아름다운 공원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주면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원과 면사무소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금양마을 도로변에 방치된 땅에 시범 남새밭을 조성했으며 이외에도 남해읍 입현마을과 미조면 초전·송정·송남 마을, 삼동면 갈현마을, 고현면 동갈화마을 등 군내 곳곳에서 유휴지를 활용한 텃밭가꾸기에 나서고 있음.



5. 원예예술촌 조성

- 원예예술촌은 원예전문가를 중심으로 집과 정원을 개인별 작품으로 조성하여 이룬 마을로 토피어리정원(뉴질랜드풍), 풍차정원(네덜란드풍), 풀꽃지붕(프랑스풍), 채소정원(스위스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21세대가 정원을 가꾸며 거주하고 있음.

이밖에 10개소의 공공정원과 산책로, 전망테크, 포토존 등이 있으며 식당, 기프트샵, 온실, 전시장, 영상실, 옥외공연장도 갖추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약5만평의 대지에 크고 작은 집과 정원들이 각각의 개성을 보여 주고 있음. 땅을 그림처럼 가꾸며 살고 있는 프로 원예인들의 마음을 체험하시며 살고 싶은 집, 가꾸고 싶은 정원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누리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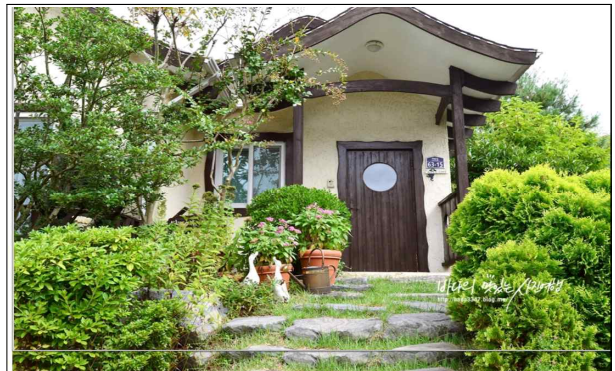


○ 원예예술촌 추진경과

- 2006. 12 남해군과 원예예술촌 MOU체결
- 2013. 5. 2013 꽃밭축제 '힐링꽃밭 페스티벌'
- 2013. 12 2013년도 35만명 관람
- 2014. 10. 2014 꽃밭축제 '가을콘서트 with 장미여관'
- 2014.12 2014년도 40만명 관람, 누적관람객 150만명 돌파
- 2015. 5 2015 꽃밭축제 '남해정원 예술제'
- 2016. 5 누적관람객 200만명 돌파
- 2016. 5. 2016 꽃밭축제 '꽃과 사람'
- 2017. 5.21~5.22 2017 꽃밭축제 '꽃과 사람, 그리고 음악'



원예예술촌 입구



복유럽풍 정원



동화속 정원



스위스풍 정원

6. 섬이공원 조성

- 남해군 남면 유구마을에 위치한 '섬이정원'은 다랭이논, 돌담, 연못 등의 한국적인 자연을 잘 살리고 여기에 유럽식 정원을 접목, 자연스러운 흐름과 공간을 창조해 만든 정원임.

섬이정원에는 현재 200여종의 다양한 원예종과 20여종의 특색 있는 수목들, 그리고 자연스런 동선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다랭이논의 높낮이를 이용한 9개의 작은 정원들은 마치 담과 문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이면서 서로 연결된 옛 궁궐처럼 9개의 개성 있는 각각의 공간이면서도 전체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형태이며 작은 다랭이 논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만든 동선과 논과 논에 흐르는 물길을 이용한 연못들이 기본적인 틀이지만 시간별, 계절별로 주는 느낌은 다양한 것이 특징임

7. 홍보활동

가. 홍보실적 : 2년간 32회 언론보도

- 2017년 20회, 2016년 12회

나. 주요 보도자료

- 2017.04.14. 남해신문 유채꽃과 함께 사랑도 꽃피고
- 2017.03.24. 남해신문 지금 남해는 꽃단장 중
- 2016.11.11. 남해신문 장평소류지 틀립 내년 봄에도 화사하게
- 2016.09.23. 남해신문 숲, 바다, 코스모스... 그리고 가을
- 2016.05.20. 남해신문 꽃과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 펼쳐졌다.
- 2016.05.13. 남해신문 5월은 꽃, 음악, 사람의 향기가 가득
- 2016.04.15. 남해신문 틀립꽃밭에 명물 하나더
- 2016.03.10. 남해신문 남면에 등지 뜬 만간정원 1호, '섬이공원'
- 2017.05.23. 남해시대 꽃, 사람, 음악의 앙상블
- 2017.04.18. 남해시대 봄은 사랑이다. 유채꽃 내려앉은 독방길 따라
- 2017.04.18. 남해시대 꽃으로 불타는 화전
- 2017.04.11. 남해시대 남해지천에 노란 유채꽃 물결
- 2017.04.11. 남해시대 꽃따라 놀이따라 남해의 봄은 축제의 향연
- 2017.04.18. 남해시대 봄은 사랑이다.
- 2017.03.21. 남해시대 송정솔바람 해변에 꽃밭 만들어요

○ 신문 스크랩



꽃과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 펼쳐졌다
2016년 05월 20일 (금) | 김동열 기자 | tenor@naver.com

원예예술촌 "2016꽃발축제" 마무리



화천 남해군의 꽃 명소 원예예술촌에서 꽃과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뤄졌다.
원예예술촌이 지난 21일과 22일 진행된 '2016꽃발축제'가 7500여명 관람객의 호응 속에 화려하게 마무리 된 것.
행사는 20일 저녁 세계 각국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예술촌 사람들의 화창으로 시작됐으며, 개막부터 본격적인 꽃과 사람

2016.5.20. 남해신문
[메일보내기] [뉴스통신] [공공정보] [기타] [기타]

***문화산책* 남면에 등지 큰 경남 민간정원1호 '섬이정원'**
다경어는, 돌담, 연못 등 남해자연과 유망적경관의 조화

2017년 03월 10일 (금) | 문화관광기자 | webmaster@namhae.tv

자연스러운 흐름과 공간 창조 '남해의 새로운 관광지 프라'



남해군 남면 유구마을에 위치한 '섬이정원'은 다경어는, 돌담, 연못 등의 한국적인 자연을 잘 살리고 여기에 유럽식 정원을 접목, 자연스러운 흐름과 공간을 창조해 만든 정원이다.
현재 남해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섬이정원은 남해 유구마을 1534-110 일대 4500

2017.3.10. 남해신문

상주 두모엔 노오란 유채꽃 물결 '넘실'
이달 7일~9일까지 3일간 두꺼비 기원제 시작으로 프로그램 다채

이종열 | 승인 2017.04.04 10:22 / (543호)



제7회 남해를 담은 두모 유채꽃 축제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상주면 두모마을 유채꽃 단지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지난해 두모 유채꽃 단지 모습

구불구불한 다람이 농두렁을 따라 올 뽕 남해에도 옛노란 유채꽃 물결이 상주면 두모마

2017.4.4. 남해시대

튤립꽃밭에 명물 하나 더
2016년 04월 15일 (금) | 김동열 기자 | tenor@naver.com



남해의 봄꽃 명소 장평소류지 튤립꽃밭에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봄에는 장평소류지를 놀이터 삼아 노는 가족들이 방문객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튤립과 함께 장평소류지의 명물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튤립꽃밭을 개장한 지난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장평소류지에는 2만2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농기술센터는 폐장일인 오는 24일까지 총 5만여명의 방문객이 장평소류지 튤립꽃밭을 찾을 것으로

2016.3.10. 남해신문

남해원예예술촌 "꽃·사람·음악의 앙상블"
개관 10주년 '원예예술촌 꽃발축제' 개최

이종열 | 승인 2017.05.23 10:22 / (550호)



관객들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음악 통해 소중한 추억 쌓아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날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2017.5.23. 남해시대

"꽃으로 불타는 화전(花田)"
다채로운 빛깔, 환란한 남해의 봄

남해타임즈 | 승인 2017.04.18 09:12 / (545호)



남해의 산과 들만이 온통 꽃으로 불타는 4월. 역시 남해가 꽃밭(花田, 화전)이라는 말이 빈 말이 아니었다. 장평소류지에서, 3월말께에는 열지않을 작은 크기의 물우리 진

2017.4.18. 남해시대

봄은 사랑이다.. 유채꽃 내려앉은 독방길 따라
제2회 남해 고현 관음포 독방길 봄꽃 축제, 장꽃·맛으로 어우러져

강영자 기자 | 승인 2017.04.18 10:10 / (545호)



내 속에 사랑이 없는 듯 하여도 돌아보면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2017.4.18. 남해시대

남해 지천에 노란 유채꽃 물결
제7회 남해를 담은 두모 유채꽃 축제 3일간 개최

이종열 | 승인 2017.04.11 09:59 / (544호)



봄은 무슨 색깔일까? 옛노란 유채꽃 물결이 상주면 두모를 비롯해 보물섬남해 곳곳을 뒤덮을 때 비로소 봄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듯 하다. 이 노오란 봄이 환연하게 가지개를 켜는 축제인 '제7회 남해를 담은 두모 유채꽃 축제'가 지난 7일~9일까지 상주면 두모마

2017.4.11. 남해시대

8. 향후계획

- 꽃으로 가득한 관광남해의 이미지 재각인으로 관광객 유치
- 남해군 800리길 전 구간 테마 꽃길 조성 및 야생화단지 조성
- 보물섬 명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계절 도로변 꽃길 조성